

#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9 / April 5, 2007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에코넷 미국의 타라 애덤스 입니다.

*Presenting April's "Exemplary ECONETian": Tara Adams of Human Resources Clerk, ECONET USA Holdings*



Cover Story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타라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The cover features a photograph of indigenous  
wildflowers growing around Unigen's Russia  
Farm and a caricature of April's "Exemplary  
ECONETian," Tara Adams.

ECONET Special

- 02 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알로에, 운명 같은 만남
- 06 스페셜 리포트 • NatureTech의 달라진 눈빛
- 10 웰니스 칼럼 • 나에게 맞는 스파(Spa)는?
- 14 포커스 • 에코넷에서 자기 실력 키우기

ECONETIAN

- 16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서번트 리더, 타라
- 20 고고우리부서 • 에코넷의 살림꾼
- 30 에코넷으로의 초대 • 유니베라 한국 정찬수 부사장
- 34 우체통 1 •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죠
- 38 우체통 2 • 내 꿈을 싣고 하늘로 비상하는 에코넷



ECONET Special

- 04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Aloe, a Fateful Rendezvous
- 08 Special Report • A New Glint in NatureTech's Eye
- 12 Wellness Column • Spa : Which one is right for you?

ECONETIAN

- 18 Exemplary ECONETian • Servant Leader, Tara Adams
- 20 Go! Go! Our Division • ECONET's 'Housekeepers'
- 32 Invitation to ECONET • Chansoo Chung, Executive Vice President, Univera Korea
- 36 A Postbox 1 • It was a tough job, but somebody had to do it!
- 40 A Postbox 2 • ECONET - Let Me Fly My Dream

Culture & Life

- 44 New Product Introduction • L'initie PhytoWhite
- 47 Recommended Books • The Blessing of the Rainbow : Everything You Undertake Shall Be a Success
- 50 Special Healthy Food • Start Your Day with Healthy Meals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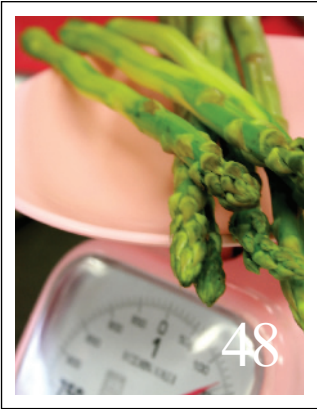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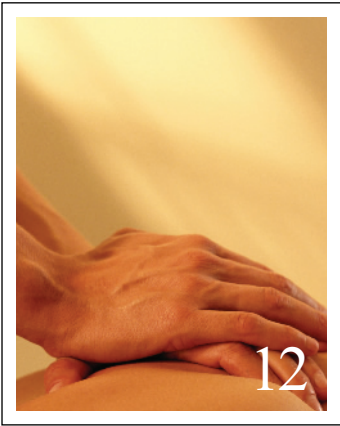
- 52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74 ECONET Photo Contest
- 78 Quiz! Quiz!
- 79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Culture & Life

- 42 신제품 • 유니베라 한국의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 46 추천도서 • 하는 일 마다 잘되리라 '무지개 원리'
- 48 Special Healthy Food • 건강한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Info

- 52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74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78 퀴즈 퀴즈!
- 79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 알로에, 운명같은 만남



지난호에 이어서 고 청강 이연호 회장님의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류를 위해 인내와 포용으로 경청하고 몸소 실천하셨던 삶을 함께 하고자 평전 내용중 발췌하여 실었다.

아래 내용은 고 청강 이연호 회장님과 이병훈 총괄사장님의 대화로 나무를 심으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을 그렸던 모습이다. 그리고 남양알로에 사업 시작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경험과 미래 10년에 대한 청강 고 이연호 회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다.

###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병훈아, 니 이담에 크모 머 되고 싶노?”

연호가 아들의 동그란 어깨를 짚으며 물었다. 병훈은 아직 심통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요... 얼마 전까진 과학자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녜요.”

“그래? 왜?”

판청 부리듯 어깨에 스치는 나무 이파리들을 손으로 쥐어뜯으며 병훈이 대답했다.

“의사가 되야 아빠처럼 아픈 사람 고쳐 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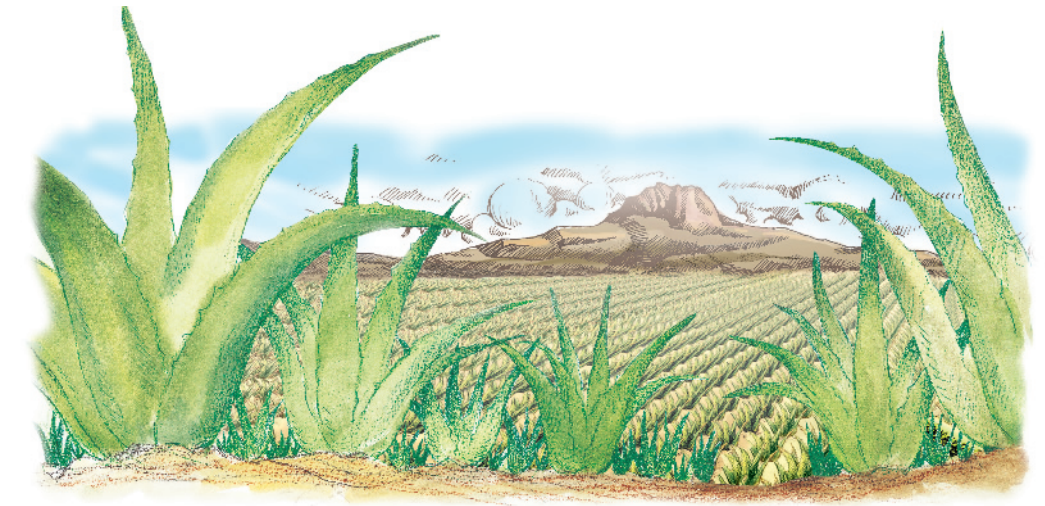
연호가 병훈이의 고사리 손을 꼭 잡았다.

어린 개구쟁이로만 알았던 병훈이까지 연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래... 나중에 니가 의사 되모 내 병부터 꼭 고치주라, 내는 여서 키운 나무들을 니 병원으로 옮겨 심어주께. 이 나무들 아래서 아픈 환자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시원한 새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말이다. 니, 시골에서 요양한다는 말 들어봤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일수록 자연과 가까이 있어야 건강해지는기라. 병훈아, 함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심은 나무로 인해 니가 돌보는 환자들이 건강해지모, 니도 역수로 좋겠제?”

병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호를 바라보았다. 지금껏 수도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지만 이렇게 자분자분 긴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전보다 훨씬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지금 나무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그 어떤 거목보다도 우람하고 당당해 보였다.

“이 나무가 자라서 아름드리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야 할까... 그때까지 살아서 내가 저 나무에 열릴 잣을 따 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연호는 어린 잣나무 주위에 돋은 잡풀을 뽑아내고는 채 굳지 않은 흙덩어리를 두 다리로 꺾꾹 밟아주기 시작했다. 어서 빨리 자라라는 주문을 외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정성껏 땅을 다졌다. 병훈이 커서 의사가 되는 것도, 어린 잣나무가 자라서 넓은 그늘을 드리게 되는 모습도, 꼭 살아서 보고 싶었다. 물끄러미 연호를 바라보던 병훈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무를 따라 땀을 흘리며 흙을 밟아 다졌다. 아직 가늘고 어린 묘목에 불과하지만 나무들도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 치열한 생존본능으로 찬찬히 등치를 늘려가고 있는게 분명했다. 보잘것없이 버려졌던 민둥산에 푸르른 생명의 빛이 조금씩 짙어가고 있었다.

### 알로에와의 지난 10년, 그리고 미래

고 이연호 회장이 ‘알로에와의 지난 10년,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에코넷 최초의 사보였던 노회에 쓴 창간사에 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시간들을 회고하며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연호의 짧은 메시지에는 확신과 포부가 진하게 배어 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1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흐려지지 않을 굳은 맹세였다.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시점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로에라는 하늘이 내린 값진 보배를 품에 지닌 행운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보배를 갈고 닦아 꿰어야 진가를 나타낸다는 이치 또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이 길을 헤치고 나가야 할 숙명적 사명도 띠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 알로에를 통해 모진 병마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되찾았고, 주위에서도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선물로 얻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제각기 여러 갈래의 길을 걸으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음은 물론, 자랑스러운 길임에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여정이기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예부터 내려오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것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내일도 자랑스럽게 전진할 것입니다.

## Aloe, a Fateful Rendezvous



*Continuing from the last issue,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biography of our late Chairman Yunho Lee, who faithfully upheld and practiced the virtues of patience and forbearance for the world and for humankind. In keeping with his founding philosophy, we would like to share his life with all ECONETians.*

*The excerpt below describes a conversation between the late Chairman Lee and his son, President Bill Lee. Taking place 10 years after he launched Namyang Aloe, the episode demonstrates his business experience at the time as well as his passionate determination regarding the 10 years that would follow.*

### For a Tomorrow that is Different from Today

“Bill, what would you like to be when you grow up?”

Yunho asked, placing a hand on his son’s round shoulder. Bill replied in a voice still gruff with petulance.

“A doctor. Until recently, I wanted to be a scientist, or a teacher... but not any more.”

“Really? Why not?”

Tearing at the leaves that brushed his shoulder as if wishing to appear preoccupied, Bill replied, “That way, I could heal people who are sick, like you.”

Yunho tightened his grip around his son’s small hand. He had no idea that Bill, whom he still regarded as a carefree child, had been worrying about his health.

“Alright... Later, when you become a doctor, I’ll be your first patient and you can make me all better. I’ll move the trees I’m growing here and plant them at your hospital, so that the patients can rest in their shade and even listen to the refreshing sound of birds singing. You’ve heard about people recuperating in the countryside, right? It’s especially important for sick people to be close to nature in order to become healthy again. Just think of it, Bill: wouldn’t it be wonderful if the trees I planted helped your patients to get healthy?”

Bill opened his eyes wide and looked up at Yunho. He had come to the mountain with his father countless time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he’d heard Yunho speak so seriously and at such length. Yunho had become thin and haggard, but to Bill’s eyes, he appeared more robust and imposing than even the largest tree.

I wonder how much time would have to pass before this tree grows to be tall and lush... I hope I can live long enough to eat the pine nuts that will grow on it...

Yunho pulled out the weeds scattered about the fledgling pine tree and began to tread firmly with his two feet, packing the loose earth around it. He pressed the soil down firmly and lovingly, as if the act were an incantation that would make the tree grow faster. He wanted more than anything to live to see Bill grow up to be a doctor, to see the sapling pine tree grow to cast a deep shade. Bill, who had been watching his father in silence, also got to his feet and started to walk in circles around the tree, packing the soil with his little feet. Although the saplings were as yet small and fragile, with their arms spread wide toward the sky they were clearly fighting to broaden their footing on this earth with a fierce instinct for survival. The green hue of life was steadily deepening on the formerly bare and neglected mountain.

### 10 Years with Aloe, and the Years to Come

In the initial issue of ECONET called ‘Aloe,’ the late Chairman Yunho Lee wrote his inaugural editorial, ‘The past 10 years with Aloe, and the years still to come.’ His message, which recalled the vicissitudes of the past and conveyed his gratitude to the people who had walked alongside him on this rough path, was deeply resonant with conviction and aspiration. It was a vow that would never once flag through the ensuing decade-indeed, would never falter no matter how many years may pass.



There is a Korean saying that goes, ‘Even a thousand beads are worthless until they’ve been properly threaded.’ I feel that this is the most apposite moral for us at this point in our journey. There is no doubt that we are fortunate to be blessed with the heaven-sent gift of Aloe, but it also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gift cannot attain its true value unless we cultivate and improve it-that is, unless we ‘thread’ it.

We also know that we have a fated mission to continue along the path we’ve embarked on, no matter how rough and treacherous it may be. Thanks to Aloe, I myself have shaken off the harsh yoke of disease and returned to a healthy life; many people around me are likewise being gifted with such astonishing experiences. This knowledge motivates me to push through each difficulty with a grateful heart. Each person born into this world treads his or her own unique path and does many things along the way. We are fueled by the conviction that the path we’re on is no less worthwhile than any other, that it is one to be genuinely proud of. Because we’re charting a new course, many difficulties continually beset us. But we can draw infinite encouragement from the adage, ‘Well begun is half done.’

We have now begun, and we are steadily hastening our footsteps. Finding rich rewards in every obstacle overcome, we will continue to move proudly forward today, tomorrow, and the next day.



# Naturetech의 달라진 눈빛

과학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무장하고 혁신을 창출한다



글 정형철 대리, 연구개발실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모토롤라, GE, 삼성처럼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기업이 되는 것은 어느 경영자나 꿈꾸는 일이다. 이런 회사들이 다른 일반 회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혁신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네이처텍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에코넷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006년 2월 식스시그마라는 새 경영혁신 방법론을 도입한 네이처텍은 작업환경 개선, 변화역량 향상, 직원들의 자신감 고취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네이처텍의 가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현장이다. 네이처텍의 작업환경 개선노력은 2005년 3정5S활동부터 본격화되어 생산현장을 정품, 정량, 정위치라는 키워드에 따라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습관화 해왔다. 이 활동은 2006년 들어 '식스시그마 명소활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작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생산현장은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깨끗한 장소로 거듭났다. 그 결과, 2006년 말에는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작업환경이 우수하고, 청결하며, 개선 실적이 탁월한 2개 공정을 '명소'로 인증하게 되었다.

생산현장의 최적화된 작업환경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성과

는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부역량을 확보한 것이다. 2006년 네이처텍은 9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3억8천 만원의 기대효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품질생산, 품질, 사무국에서 Black Belt 2명, Green Belt 2명을 배출하여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많은 생산 근로자들이 혁신과정을 경험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활동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결실은 직원들의 자신감이다. 2006년 2월에 식스시그마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식스시그마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은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포기 모르는 네이처텍의 정신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현장이 변화하자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제 네이처텍의 에코네시안들에게는 몸으로 얻은 혁신방법론과 성공이라는 달콤한 체험이 보태진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식스시그마란?

불량이나 에러 발생률을 3.4PPM(백만개 중 3.4개)이하로 낮

춘다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마케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획책정프로세스 등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사적인 활동이다. 창안자인 Mikel J. Harry 식스시그마를 '통계적 측정이자 기업전략이며 철학'이라고 정의했다. 객관적인 통계수치로 측정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객만족의 달성 정도와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식스시그마를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할 수 있다. 식스시그마의 실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다. 고객중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과학적, 논리적,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 프로세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스마트하게' 일하도록 하는 철학이 바로 식스시그마이다.

## 식스시그마의 실행 프로세스

식스시그마는 DMAIC의 프로세스 즉, 정의(개선기회의 정의)(Define), 측정(성과측정) (Measure), 분석(개선기회분석)(Analyze), 개선(개선활동)(Improve), 통제(관리)(Control)로 진행된다.

## 개선기회의 정의(Define)

기업경영 및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기회를 도출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도출, 맵핑, 고객의 소리수집, 고객의 품질소요정의 등을 수행한다.

## 성과측정(Measure)

기업이 고객의 핵심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도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 개선기회분석(Analyze)

현재의 시그마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의 종합적인 분류 및 분석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주요 활동은 업무 프로세스의 층별 분류, 데이터의 분류, 구체적인 문제점의 도출, 문제기술서의 작성, 근본원인의 도출 및 원인분석과 검증 그리고 담당부서의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 등이다.

## 개선활동(Improve)

올바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에 따르

는 부작용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에 최적안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통제 관리(Control)

개선안과 개선계획의 실행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결정한다.(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표준화를 통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사항이 항상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수평전개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스시그마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4~5단계의 인증체계에 따라 식스 시그마를 실행하고 리드하는 인재 수준을 분류하여 육성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Green Belt, Black Belt, Master Black Belt, Champion이 그것이다.

## 에코넷 차원의 성공사례로 육성

네이처텍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식스시그마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1년이 지나 2년 째 되는 해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에 대한 자만심, TOP의 의지 감소, 구성원들의 의지 감소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네이처텍은 최고경영층과 구성원들의 의지와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식스시그마를 전체 에코넷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공사례로 만들자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토롤라, GE,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네이처텍의 식스시그마 역시 에코넷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 A New Glint in *NatureTech*'s Eye

### *Creating Innovation through Scientific Problem-Solving*



By Hyoungchul Jeoung, Assistant Manager,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To build a company driven by passion for change and innovation, like Motorola, GE, and Samsung? this is the dream of every manager and entrepreneur. Although these companies enjoy the envy and admiration of their less inventive counterparts, keeping up such a constant pursuit of innovation is a difficult and daunting task. Nonetheless, NatureTech has erected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ECONET upon the foundations of a dauntless spirit of challenge: in February 2006, NatureTech adopted a new methodology for management innovation known as Six-Sigma, and achieved such positive results as an improved working environment, a boost in the company's capacity for change, and heightened confidence among its employees.

One area in which such changes are clearly visible is on the production floor. NatureTech's initiative to improve the workplace environment began in earnest in 2005 with a campaign whose keywords were 'authentic goods, correct amounts, and proper places.' Under this slogan, the campaign established a habit of organization, cleanliness, and hygiene within the company. Such efforts naturally led to the 'Six-Sigma process-enhancement activities' of 2006. As the endeavor to improve the workplace continued to unfold, the production floor became reborn as the most suitable and sanitary place for work. Accordingly, at the end of that year, two production processes with superior, clean, and substantially improved working environments received the certification for 'Best Process' following a thorough evaluation by the judging panel.

Another notable achievement besides the optimization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is the acquisition of NatureTech's internal capacity for leading sustained innovation. In 2006 alone, NatureTech successfully implemented nine individual projects and reaped a total of 380,000 dollars in anticipated benefits. Through this process, two Black Belts and two Green Belts were inducted across the production, quality, and secretariat sectors,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independently plan innovation activities and conduct training programs. The fact that numerous members of the production workforce experienced the innovation process must also be counted among our successes.

Finally, the most valuable reward of our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confidence of our employees. Back in February 2006, when our Six-Sigma activities were first launched, many were skeptical about our chances of success at a process with which even large corporations struggle mightily. Moreover, learning unfamiliar and difficult contents lowered the staff's morale. But NatureTech's unflagging spirit overcame these obstacles and generated change. As continued education and practice transformed the workplace, a new light began to gleam in the eyes of our employees. Now, all ECONETians at NatureTech are armed with the unshakable certitude born of a hard-won innovative methodology combined with the sweet experience of success.

#### *What Is Six-Sigma?*

Six-Sigma aims at the lofty objective of reducing the ratio of errors and defects to 3.4 ppm (3.4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or lower. It is a company-wide

activity encompassing not only quality control but the entire spectrum of management functions including marketing, engineering, service, and planning & appropriation. The originator of Six-Sigma, Mikel J. Harry, defined it as at once 'a statistical measurement, a corporate strategy, and a philosophy.' By using objective statistical data to perform measurements and comparative analyses, Six-Sigma allows for the precise discernment of the extent and direc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Six-Sigma, companies can elevate product quality, reduce cost, and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x-Sigma, employees experience a transformation in their attitude toward work. Problems are identified from the customer's standpoint and resolved through scientific, logical, and objective methods, thus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company's processes. In short, Six-Sigma is a philosophy for 'smart' performance.

#### *Six-Sigma Implementation Process*

Six-Sigma's DMAIC process consists of five steps: definition, measurement, analysis, improvement, and control.

##### *Definition of Improvement Opportunities (Define):*

This step involves the deduction and definition of opportunities for improving corporate management and work processes. The identification of eligible work processes, process flow mapping, the gathering of customer demands, and the definition of customers' Critical to Quality (CTQ) issues take place during this step.

*Measurement of Results (Measure):* This phase involves the devising of core indicators for evaluating how well the company is satisfying customers' CTQs as well as the gathering of data for measuring results.

*Analysis of Improvement Opportunities (Analyze):* This is when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work processes are undertaken to improve current Six-Sigma levels. The main activities include the stratified classification of work processes, the classification of collected data,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problems, the compilation of problem statements, the identification of fundamental causes, the verification of casual analyses, and the generation of creative solutions by relevant departments.

*Improvement Activities (Improve):* During this step, innovative solutions are created, their feasibility is assessed, and the side effects of implementation plans are examined, after which the optimum solution is selected.

*Exercise of Proper Control (Control):* At this point, the correct method for implementing, sustaining, and monitoring the selected process improvement plan is determined.

In implementing Six-Sigma, the cultivation of human talen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refore, Six-Sigma generally adopts a four- or five-level certification system. In our case, we know these levels as Green Belt, Black Belt, Master Black Belt, and Champion.

#### *Expansion into an ECONET-Wide Success Story*

During one short year, NatureTech ha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However, many companies that successfully adopt Six-Sigma tend to stumble in their second year. The main causes for such failure are overconfidence bred by success, diminished interest on the part of the company's top management, and flagging dedication by the participants. However, at NatureTech, the interest and dedication of the staff and top management are intensifying day by day. In fact, a consensus is forming to expand Six-Sigma into an ECONET-wide success story. Someday, as was the case with Motorola, GE, and Samsung, Six-Sigma will be know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CONET's development.



# Wellness

## 나에게 맞는 스파(Spa)는?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우리 모두 웰니스(wellness) 생활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파(spa)를 애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바를 꼼꼼히 신경 써주고 질적으로도 만족시켜 줄 만한 스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여러 종류의 스파가 산재하며, 그 숫자마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스파의 수는 거의 4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출처: 2006년 스파업계 현황, 국제스파협회, 2006년 11월 6일)

그런 의미에서 아래 몇몇 스파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에코네시안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스파를 선택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일반 대중이 자주 애용하는 스파는 데이스파(day spa) 혹은 클럽스파(club spa)입니다. 이들 스파는 바쁜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도심에 위치하며, 몸 전체에서 얼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만큼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심신(心神)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한시간,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지만, 숙박시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의 초점은 미용 관리 및 피로, 스트레스 해소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건강 유지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스파들은 새롭고 특이한 스파 요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요컨대, 데이스파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격과 시설 규모가 다양하며,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로는 목적지스파(destination spa)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리조트스파(resort spa)의 일부로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파는 생활방식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바꾸려는 결심이 확고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스파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며칠 정도 소요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운동 클래스, 신체 및 안면 요법,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활동 및 스파 식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스파의 서비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보강하고자 하는 상위층 및 부유층 고객에 맞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지 스파에서는 병원이나 여러 전문 서비스 기관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개인 트레이너, 고급



요리사는 물론 미용 컨설턴트, 행동치료사, 심지어는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스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 지역에 리조트처럼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시간, 의지 및 노력을 들여 웰니스의 모든 측면에 걸쳐 혜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스파(medical spa, medi-spa) 혹은 리조트스파(resort spa)라는 명칭이 목적지스파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파들 중 가장 인기있는 곳으로는 이전 에코넷웨이에 소개되었던 캐년 랜치(Canyon Ranch)와 쿠퍼 에어로빅 센터(Cooper Aerobics Center)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웰니스 인스티튜트(California Wellness Institute)가 있습니다.

스파업계가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의료스파 업계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33%의 업체숫자증가와 244%의 수익 증가를 기록함, 출처: 2006년 스파업계 현황, 국제스파협회, 2006년 11월 6일) 의료스파는 주류의학과 보완대체의학(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을 접합시켜 포괄적 의료 및 전체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며, 흔히 개인 전문사업자 혹은 의료 및 스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스파를 의료스파로 지칭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은 스파들이 목적, 서비스, 환경, 운영지침 등에 있어 각각 큰 차이

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스파라는 명칭을 두루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태국 시바솜 국제건강리조트(Chiva-Som International Health Resorts)의 대표이사인 조이 멘시스(Joy Menzies)는 의료스파의 정의가 특정 의료스파가 원래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서비스에서 비롯되었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서양의학에 기인한 의료스파는 만성질환을 위한 물리치료, 호르몬 요법 및 치료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미용 요법이나 피부병학에서 비롯된 스파들은 미용 시술에 중점을 두는 반면 TCM, 아유르베다(Ayurveda) 등 전통의학이나 보완의학에 기반을 둔 치료법을 제공하는 스파들은 보다 전체(全體, holistic)적인 성격을 띕니다.” (출처: 2006년 11월/12월자 SpaAsia, 182페이지)

마지막으로, 유람선스파(cruise spa)가 있는데, 이름만 보아도 이곳의 스파서비스는 유람선 상에서 제공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람선스파에서는 목적지스파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는 (혹은 매우 드문) 반면 고가의 특유한 서비스들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이는 이러한 스파를 찾는 고객들의 주된 의도가 변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생활방식への 전환을 기하는 것보다는 휴식 및 휴양, 즉 호사스러운 대접 속에 재충전의 시간을 즐기며 미용 관련 신체, 안면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코네시안 여러분! 어느 스파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스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적 제한이 문제가 된다면 사무실 빌딩 모퉁이만 돌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지 모르는 데이스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 Wellness



## Spa: Which one is right for you?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As we all strive to dwell a wellness life, one of the ways in which you can attain ‘wellness’ is through Spa. But today one can be easily bewildered when choosing the just right spa that could meticulously serve what’s desired while meeting the expected quality. The reason being,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spas around the world nowadays, and the steadily growing number of spas is not helping. Especially in case of USA, the number of spas has increased by nearly 40% from year 2003 to 2006. (2006 Spa Industry Update, International SPA Association, Nov. 6, 2006)*

In that, here are some of the spas categorized by their distinctive services provided. Hopefully this can serve as guidance to ECONETians in choosing the right spa and to fulfill the delicate needs and specific demands.

First, the most prevalent and commonly visited spa by ordinary spa goers is the Day Spa or Club Spa. They are usually located in urban areas for convenient visit by busy individuals and serve almost infinite number of treatments from body to facial and often services for mind as well in many cases recently. It usually lasts an hour, a half day or one day without offering overnight accommodation. In most cases, some of the main focus of programs are on maintaining beauty, relaxation and wellness in its general term. It also offers opportunities to experiment unique and new spa treatment trends. In essence, the day spas are convenient, vary in prices and facility sizes, and offer

services that are designed for short term intervention as opposed to long term.



Then there are Destination Spas, which are often incorporated with resort spas to offer services for life-altering experiences. It is most suitable for those wishing



to change or reform lifestyles into a healthy one. The destination spas offer overnight accommodation, multi-day programs of exercise classes, body and facial treatments, mind-enriching and stress-reduction activities as well as spa cuisine. They are relatively expensive and designed for high-end or affluent individuals who seek to empower their state of well-beings. On that regard, most destination spas are staffed with personal trainer, maid, chef, and specialists such as beauty consultants, behavior therapists, or even board certified physicians, either on site or in partnership with healthcare facilities, e.g. hospitals. The Destination Spas are usually in rural area in resort-like setting away from city and requires much of devotion in time, determination, and effort in obtaining all aspects of wellness.

Meanwhile, often the term Medical Spa (medi-spa) or Resort Spa are being used interchangeably with Destination Spa. Some of the most sought-after spas of such kind are California wellbeing Institute, and as mentioned in the earlier issue of ECONET Way, the Canyon Ranch and Cooper Aerobics Center.

In speaking of medi-spa, during the year 2004 to 2006, amid rapidly growing number of spas, the medical spa industry has grown at an exponential rate (133% increase in numbers and 244% increase in revenue in case of USA, [2006 Spa Industry Update, International SPA Association, Nov. 6, 2006] ). A medical spa or medi-spa is usually operated by individuals, solo practices, groups or institutions comprised of medical, Physical, and spa professionals with primary purpose of providing comprehensive medical and total wellness care with integration of conventional and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CAM).

Having said that, referring a spa as medi-spa can be very confusing as there are countless applications of the term despite the great extent of differences in the purpose, service, setting, and even policies in each spa. On that regard, Joy Menzies, Managing Director of Chiva-Som International Health Resorts in Thailand, shares her view that a definition of medi-spa tends to depend on where/what service that particular medi-spa originates from. “If from Western medicine, it is more likely to focus on physical therapies, hormones and treatments for chronic disease; those from beauty therapy or dermatology emphasize cosmetic procedures; whilst those that offer treatments based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such as TCM or Ayurveda, are more holistic in nature” (SpaAsia, November/December 2006, Page 182)

Lastly, there is also Cruise Spa, which by name you may have already guessed that the spa services are being provided on a cruise. In most cases, the services and programs like the ones in destination spa are not offered (very rare if any) while abundance of exclusive spa treatments are present. This is because the main motives for the spa goers tend to be most likely for relaxation, being pampered, rejuvenation, and to be indulged on beauty related body and facial services rather than transforming lifestyle with ultimate devotion and determination to change.

So, all ECONETians! Which spa do you think is the right one for you? If time is of your constraints, you can start with a day spa that is probably just right around the corner of your office building.



## 에코넷에서 자기 실력 키우기



글 김남규 팀장,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남양

“지난 2006년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직원들의 연봉으로 1인당 평균 62만2000만달러(한화 5억7388만원)를 책정했다. 우리의 성공을 돈의 관점에서만 볼 수도 없고 산업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밖에는 없겠지만, 에코넷 직원들이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병훈 총괄 사장이 지난 3월 14일 2007년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성패는 결국 에코네시안들이 골드만 삭스의 직원들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을 잘 알고 이를 적절히 잘 활용 해야만 한다.



###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에코넷한국의 교육은 의무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의무교육은 직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선택역량교육은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OA과정이나 영어교육 같이 공통역량에 관련된 것도 필요에 따라 선택교육으로 분류되어 있다.

### 교육 이수방법

의무교육은 동일한내용의 교육을 차수별로 진행하므로 각 차수 중에서 선택하여 연 1회만 수강하면 된다. 상반기에 서번트 리더십과정(2007년 1박 2일 예정)을 1회 수강하고, 하

반기에 직무공통기술과 관련한 집체교육을 1회(2007년 2박 3일 예정) 참석하면 공통역량과 관련된 의무교육이 이수된다. 여기에 각 사별로 진행할 정책 필수교육(IT보안교육, CCMS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의무교육 이수가 완료된다.

선택교육은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선택교육 중에서도 영어교육은 연간 최소 36학점 이상 신청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선택교육의 과목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무공통역량 중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보완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팀과 개인의 역량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자

팀과 개인의 역량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교육을 받아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역량포트폴리오란 팀과 개인의 업무와 전략과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리스트를 말한다. 팀의 직무리스트와 전략과제 리스트를 기초로 필요한 역량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역량 별 현재 수준과 목표수준을 정의하여 팀 역량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개인별 역량포트폴리오는 팀의 역량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자신의 직무와 전략과제에 해당하는 요소를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올해의 선택교육만을 위해서라면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의 목표전략합의서를 꺼내놓고 해당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과 지식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그리고 작성된 역량과 지식의 리스트에서 현재의 자신의 수준이 충분한 지 검토해 보라.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역량관리를 일상화 하자

팀과 개인들의 역량을 회사의 전략방향에 맞게 잘 준비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인력을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준비된 개인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역량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사업계획 프로세스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를 기초로 팀별, 개인별 연간역량향상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 면담을 통해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인재가 필요한 에코넷

모두가 알다시피,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2단계전략에서 에코넷의 화두는 글로벌 확장전략의 실행이다. 에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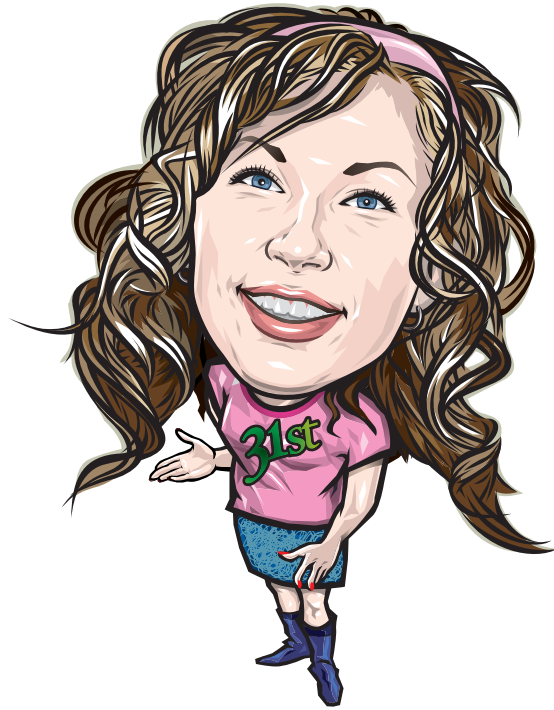


미국의 캐나다 진출, 중국법인의 공장건설 및 리조트 단지 추진, 웰니스 사업 추진 등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은 수많은 준비된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에코네시안들이 이 새 사업들을 중심에서 이끌어 세계 곳곳을 누벼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력들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에코넷이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가 현재 시점에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은 현명한 에코네시안이 지켜야 할 신성한 성실의무의 하나이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에코넷의 미래 리더가 될 것이다.







## 서번트 리더, 타라 아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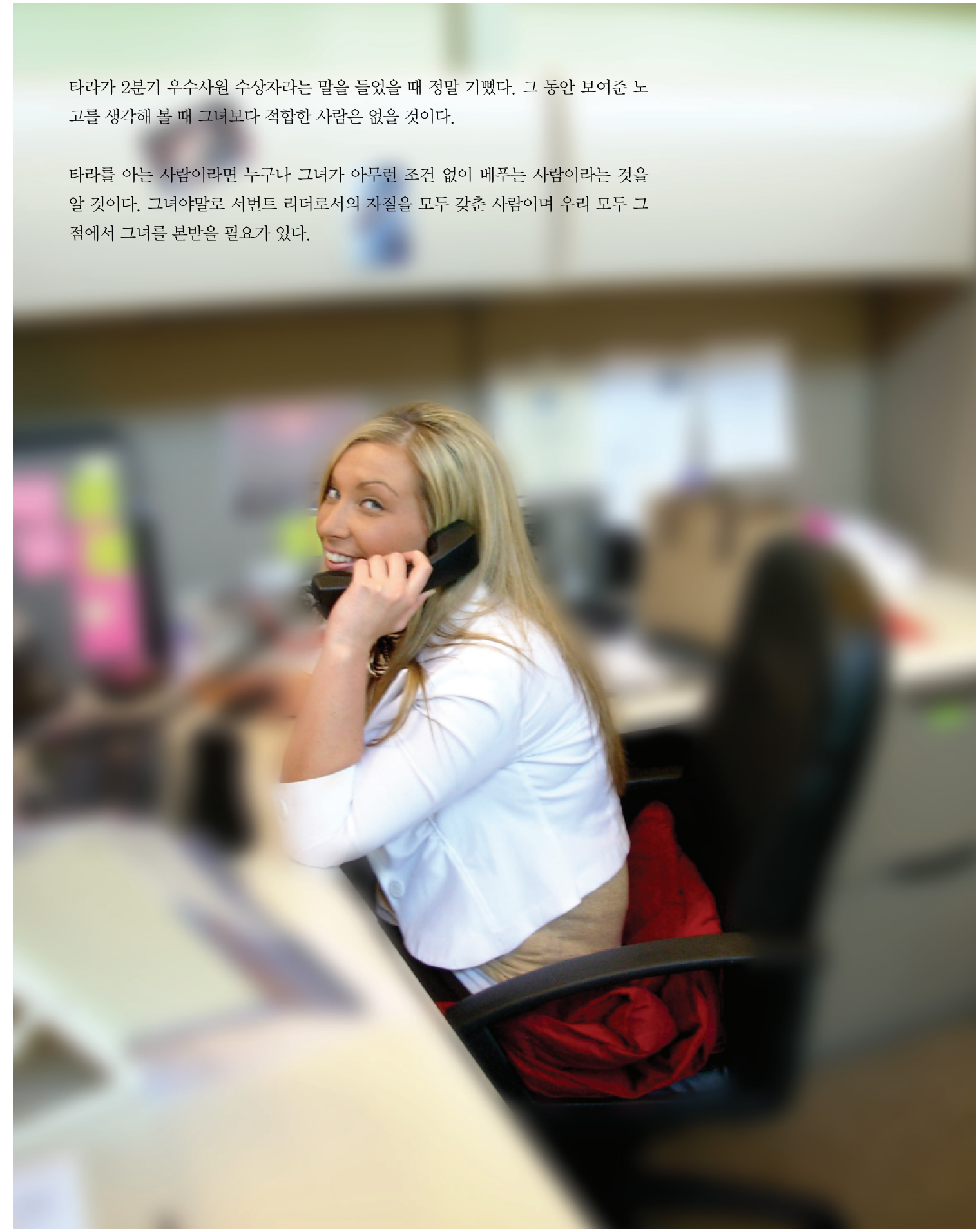
글 안나 램지, 임원보조, 알로콰 미국

에코넷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타라는 이미 서번트 리더였다. 그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 접수원인 그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다. 그녀는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며 어떤 요구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도와준다. 그녀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에 우리 모두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1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타라는 현재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사부로서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맡건 항상 준비된 자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자신이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그녀는 훌륭한 동료이며 우리의 큰 자산이다.

타라가 2분기 우수사원 수상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다. 그 동안 보여준 노고를 생각해 볼 때 그녀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타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녀야말로 서번트 리더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사람이며 우리 모두 그 점에서 그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Servant Leader, Tara Adams*

By Anna Ramsey,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Aloecorp USA

Before Tara started working for the ECONET as our front desk receptionist, she was already a Servant Leader. She probably hadn't heard the term before, but she was already practicing what we preach. As our receptionist, Tara was the 'go-to person.' If you had a question, Tara more than likely had the answer. No request was too small and she never refused to help anyone who asked. She had several duties as our receptionist, but I think everyone will agree with me, her most important task was making sure we were all fed on Fridays. What can be more challenging than coordinating a meal for over 160 people!



Tara now works with our Human Resource team. Our HR department is very lucky to have her. She is always ready and willing to complete any task that is assigned to her. I've also observed that if she is unable to help with the task, she'll find someone who can. Because of her Servant Leadership attitude, she is a great co-worker and an asset to our Lacey office.

When I was told Tara Adams was going to be our employee of the quarter, I was so happy for her. Tara definitely deserves the recognition for all her hard work and efforts.

Anyone that knows Tara knows she is the type of person who gives without asking for anything in return. Tara possesses so many qualities of Servant Leadership, and we should all be taking lessons from her on the subject.





# Go! Go! Our Division

## 에코넷의 살림꾼

지난 호 “에코넷의 마케팅을 이끄는 사람들”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에코넷의 살림꾼” 즉, 회계나 재무업무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ECONET's “Housekeepers”

Following up from last issue's introduction of the “People Who Lead ECONET's Marketing,” this issue showcases “ECONET's Housekeepers,” the people who faithfully fulfill their roles in accounting and finance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 왼쪽부터 심호영, 송형중, 안현진, 최상태

▲ From Left : John Sim, Hyungjong Song, Hyunjin Ahn, Sangtai Choi

#### 1. 부서명 : 재무&자금팀

#### 2. 구성원들의 소개

CFO실은 재무부문의 웨이드 서비스를 통한 에코넷의 효율경영 및 재무안정화를 책임지고 있으며, 심호영(CFO) 상무가 실장이다. 각 사의 비율경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재무팀은 최상태 차장(팀장)과 송형중 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업무로는 예산효율경영, 경영실적관리, 각 사의 재무정책 가이드 및 중장기 재무전략수립 등이 있다. 대내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무팀과 달리 대외적 IR에 힘쓰고 있는 자금팀은 최상태 차장이 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안현진 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에코넷의 Cash Flow Management를 총지휘하며, 금융자산의 운용 및 조달, 각 사의 대외 신용평가, Cash Flow Planning을 핵심업무로 하고 있다. 비록 구성원의 수는 적지만 뛰어난 조직력과 일당백인 전력으로 에코넷의 시작(예산)에서 끝(자금)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다.

#### 3. 하고 싶은 말 에코넷의 살림은 우리에게 맡겨라

#### 1. Department :

#### Financial Management Team & Finance Team

#### 2. Member Introductions

The CFO's Office is responsible for achiev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stabilization at ECONET through shared services in the financing sector. It is headed by CFO John Sim. The

Financial Management Team, which devises the management ratio roadmap for each of ECONET's companies, consists of Team Manager Sangtai Choi and Assistant Manager Hyungjong Song. Their chief responsibilities includ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budgeting, the overseeing of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each company's financial policy guidelines and mid- to long-term financial strategies. Unlike the Financial Management Team, which provides accounting and financial services for ECONET companies, the Finance Team is dedicated to IR outside the ECONET. At present, Financial Management Team Manager Sangtai Choi is serving double-duty as the head of the Finance Team, with the support of Assistant Manager Hyunjin Ahn. The Finance Team supervises ECONET's overall cash flow management, as well as handling the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financial assets, the evaluation of each company's external credit ranking, and cash flow planning. Although few in number, the members of our team oversee ECONET's entire “housekeeping” process from start (budgeting) to end (finance), thanks to their remarkable organizational strength and Herculean capacity for work.

#### 3. Greetings

Just leave ECONET's housekeeping to us!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네이처텍 / NatureTech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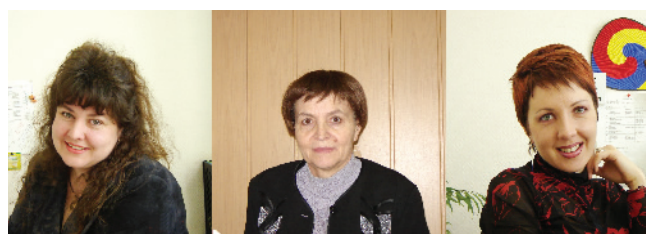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알로콱 미국 / Aloecorp USA



알로콱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and Namyang China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왼쪽부터 공승식, 박홍엽, 황혜정, 추명주, 최민경, 김성무  
▲ From Left : Seungsik Kong, Hongyeop Park, Hyejeong Hwang, Myungjoo Chu, Minkyung Choi, Sungmu Kim

### 1. 부서명 : 경영지원팀

###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6명으로 공승식 팀장은 일어난 자세로 전화받을 만큼 적극적인 팀장이고, 꼼꼼함이 유니베라 1등인 황혜정 대리는 관리회계 업무를 맡고있다. 또 누구에게나 친근한 삼촌 같은 박홍엽 대리는 총무업무를 지원하며, 경영지원팀의 든든한 사수 추명주 대리는 재무회계를, 귀여운 미소와 친절, 정확함이 트레이드인 최민경 사원은 자금을 맡고 있으며, 새내기 김성무 사원은 비서역할을 한다.



### 3. 하고 싶은 말

“유니베라가 JUMP -UP 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1. Department : General Management Team

### 2. Member Introductions

The team is composed of six members, starting with Team Manager Seungsik Kong, who is so energetic in everything that he even gets up from his seat to answer the phone; Assistant Manager Hyejeong Hwang, Univera's most meticulous employee, takes care of managerial accounting; Assistant Manager Hongyeop Park, avuncular and friendly to all, supports general affairs; Assistant Manager Myungjoo Chu, the General Management Team's stalwart gunner, is a financial accounting expert; Staff Minkyung Choi, whose trademarks are her smile, kindness, and precision, takes charge of finance; and Staff Sungmu Kim, the newest addition to the team, works as a secretary

### 3. Greetings

“We will dedicate our best efforts and support to Univera's Jump-Up!”

## 네이처텍 / NatureTech



▲ 왼쪽부터 윤성원, 허영주, 안기억, 김정신, 정봉수  
▲ From Left : Sungwon Yoon, Youngjoo Heo, Kieuk Ahn, Kyungsik Kim, Bongsu Jong

### 1. 부서명 : 경영지원팀

###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6명으로 경영지원본부의 사령관이 바뀌었다. 꼼꼼함의 대명사인 안기억 본부장이다. 합리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어 설득력이 강하다. 팀장 허영주 부장은 총무, 재무, 원가를 총괄하여 더 빠르게라는 팀 방침으로 목표비를 경영달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을 하며, 박성완 과장은 ERP PI TFT을 운용하여 ERP 안정화와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정봉수 대리는 재무와 예산을 맡아 손익에 관련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며 윤성원 대리는 원가 담당자로서 관리회계를 통해 원가절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영지원팀의 홍일점인 김정신 사원은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하고 싶은 말

경영지원팀원들은 일당백이다.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에 가깝지만 총무, 재무, 원가, ERP 등 담당자가 각각 한 명씩이다. 네이처텍의 안방살림과 직원들의 웃음은 우리 경영지원팀이 책임진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네이처텍 여러분! 사랑합니다.

### 1. Department : General Management Team

### 2. Member Introductions

The six-member General Management Team is led by a new commander-in-chief: General Manager Kieuk Ahn, who embodies

the spirit of meticulousness and circumspection. His innate persuasiveness is strengthened by his watertight logic. Dept. Manager Youngjoo Heo, who oversees general affairs, finance, and costs, works to achieve target ratio management and raise company morale under the team motto of “Ever speedier.” Section Manager Seongwan Park operates the ERP, PI, and TFT, dedicated to the stab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ssistant Section Manager Bongsu Jong, in charge of finance and budgeting, provides decision-making data concerning profit and loss. Assistant Section Manager Sungwon Yoon, whose specialty is costs, accomplishes cost reduction through managerial accounting. Kyungsin Kim, the only female member of the General Management Team, handles cash management.

### 3. Greetings

Each member of the General Management Team is worth a hundred. Although the size of the company is fairly large, there is only one person assigned to general affairs, finance, costs, and ERP, respectively. At NatureTech, both keeping house and keeping its employees smiling are our team's sworn responsibility. ECONETians! The NatureTech family! We love you!





▲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 차경섭, 박경민  
▲ From Left : Kyoungsub Cha(seated), Kyeongmin Park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 부서명 : 재경팀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2명으로 박경민 팀장은 유니젠에서 재무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4살 된 딸을 둔 엄마로 평소에도 엄마처럼 자상한 마음으로 주변을 챙기곤 한다. 차경섭 대리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살림꾼으로 통한다. 재경팀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특히 연구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3. 하고싶은 말

안녕하세요, 유니젠의 보루!! 유니젠 재경팀입니다.

1. Department: Finance & Accounting Team

2. Member Introductions

The team is composed of two members. Team Manager Kyeongmin Park, who takes care of the people around her with the same maternal care she devotes to her four-year-old daughter, oversees Unigen's finance-related tasks. Assistant Manager Kyoungsub Cha, who possesses a relaxed and candid personality, is widely known as a dedicated worker who never turns up his nose at disagreeable jobs. He carries out the practical tasks of the Finance & Accounting Team, especially administrative support for research.

3. Greetings

We are the Finance & Accounting Team, the staunch defenders of Unigen.



▲ 왼쪽부터 손병일, 데이브 프레데릭, 이요한  
▲ From Left : Byung Sohn, Dave Frederick, and Yohan Lee.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1. 부서명 : 재무 & 회계 부서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3명으로 이요한 상무보, 손병일 차장, 데이브 프레데릭 대리가 있다. 미국의 에코넷 회사들에 최상의 공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모든 회계와 재무문제 조정, 정리, 임원들에 대한 재무 분석자료 제공, 재무 기능, 내부 감사, Compliance 서비스, 그리고 세금보고 등이 포함된다.

3. 하고싶은 말

에코넷 역사상 최고의 해를 만듭시다.

1. Department : Finance & Accounting Department

2. Member Introductions

The department is composed of three members: Controller/Director Yohan Lee, / Financial Manager Byung Sohn, and Assistant Accountant Dave Frederick. We are providing the best shared financial services for all ECONET companies in the USA. These services include coordination of all accounting and financial issues, consolidation, advanced financial analysis to management, treasury functions, internal audit, compliance services, and tax filing.

3. Greetings

Let's make this the best year in ECONET's history.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앞줄 왼쪽부터 테레사, 크리스틴, 멜리사, 중간 줄 왼쪽부터 타라, 제니, 사라, 뒷줄 왼쪽부터 제니퍼, 레이븐, 케넌, 줄리, 토드는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 Front row, from left, Theresa, Christine, Melissa, Middle row, from left, Tara, Jenny, Sarah, Back row, from left, Jennifer, Raven, Kenan, Julie, Todd was unable to be in the photograph.

1. 부서명 : 재무 부서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11명으로 토드는 재무/회계부서 업무 총괄 책임관리를 맡고 있으며 크리스틴은 일반 회계 업무 관리, Oracle/iCentris system 개발 업무, 미지급금 관리 업무, 외상 매출금 관리 업무, 및 재무제표 작성 보고 업무를 한다. 줄리는 Commission 관리 업무, 제품 반송 처리 및 환불관리와 신용카드결제 회계관리업무, Oracle/iCentris system 개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라는 세무 관련 업무, 회계 flowchart/문서 업무, Oracle/iCentris system 개발 업무, Servant Leadership을 맡고 있고, 테레사는 자금 관리 업무 및 재무 회계 지원 업무를 한다. 레이븐은 미지급금을 관리 및 기록을 하며 지급 업무를 맡고 있다. 제니퍼 베인터는 매출 현황, 외상 매출금, 및 자금 보고서 작성 업무 담당 그 외 구입주문서 관리를 하며 멜리사는 Commission관련 교육, 조정,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제니 헨츠먼은 Commission 지불, 상담, 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타라는 제품 반환에 따른 환불 처리 업무 및 commission 조정 업무 그 외 자동화 자금 결제 지원 업무, 그리고 케넌은 제품 반환 처리 업무 및 자동화 자금 결제 처리 업무를 한다.

3. 하고싶은 말

유니베라 미국 재무팀이 세계 곳곳의 에코네시안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새로운 회계와 commission 처리 시스템 도입 때문에 무척 바쁘답니다. 그 동안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1. Department: Finance Department

2. Member Introductions

Univera USA's Finance Department consists of 11 members. Director of Finance and Accounting, Todd Shumsky, oversees all functions within the department. Financial Accounting Manager Christine Wentzel manages Accounts Payable, Accounts Receivable, G/L, Financial Statements, and Financial Reporting, as well as processes payroll and Oracle/iCentris systems development. Operations Accounting Manager Julie Garrison manages commissions, compensation plan changes, returns, credits, and payment tech processing in addition to Oracle/iCentris systems development, and is responsible for paying our 10,000 commission checks to qualified associates. Tax Accountant Sarah Wall is responsible for researching and processing tax payments for Univera, is the flowcharting and documentation team leader, and handles Servant Leadership and Oracle/iCentris systems development. Financial Accountant Theresa Johnson is in charge of cash management for Univera. She also supports all functions of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Clerk Raven Campbell processes Accounts Payable for Univera, including payments and G/L coding of all invoices and reimbursements. Accounting Clerk Jennifer Bainter is responsible for Univera Daily Sales reporting, cash reporting, and CEO reports, as well as Accounts Receivable. She also maintains the Univera Purchase Order System. Accounting Clerk Melissa Story is responsible for



sponsor/placement changes, merges/compression, printing checks/statements, commission training, 1099 and T-4 processing, and charge-backs. She also manages the postage machine and the check stuffers. Accountant Jenny Huntsman is in charge of Daily Pay Processing, voiding/re-issuing commission checks, SARS, answering calls on compensation plans, printing checks/statements, daily and monthly journal entries, and Serve First Accounting. Accounting Clerk Tara Moses is responsible for processing credits and commission drawbacks for Univera. She also assists with ACH

processing. Last but not least, Accounting Clerk Kenan Butler processes returns and ACH transactions for Univera.

3. Greetings

The Univera USA Finance Team would like to say “Hello!” to all fellow ECONETians around the world. We are very busy right now, implementing our new financial accounting and commissions processing systems. Thanks to everyone for their support and patience while the “construction signs” are up!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 왼쪽부터 김, 마리아, 캐롤린 그리고 의자에 앉은 신상현    ▲ From Left : Kym, Maria, Carolyn, and Sang (seated)

1. 부서명 : 회계 부서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4명으로 신상현 과장은 회계부서의 팀장으로서 모든 월말 회계 보고서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상이익과 시장확대 및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의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캐롤린 둘란은 매일 진행되는 총계정 원장, 급여, 그리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관련된 개별 회계원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김 파머는 자금운영에 관한 월말 보고서 작성에 협력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매입채무계정을 전담하고 있고, 끝으로 마리아 로페즈는 고정자산과 매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3. 하고싶은 말

안녕하세요. 유니젠 미국 회계팀은 이렇게 좋은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미국인, 스리랑카인, 이란인, 베트남인, 중국인, 호주인, 러시아인, 필리핀인, 그리고 인도인까지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단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각 부서의 동료들은 친구이자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1. Department : Accounting Department

2. Member Introductions

Comprising four members, the Accounting Department is headed by Manager Sang Shin, who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all the

month-end accounting reports we produce. Additionally, he works on achieving operating profit, pursuing market expansion, and building up our ERP system. Senior Accountant Carolyn Doolan monitors the day-to-day details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at the G/L level, manages payroll, and oversees the payables and receivables areas. Staff Accountant Kym Farmer handles the Accounts Payables and Cash Management portion of our monthly reporting. Staff Accountant Maria Lopez is responsible for Account’s Receivables and Fixed Assets.

3. Greetings

Hello ECONETians! We at Unigen USA Accounting feel it is both a privilege and an honor to be part of this wonderful company! It is amazing to us that with all these diverse cultures-Korean, American, Sri Lankan, Iranian, Vietnamese, Chinese, Australian, Russian, Philippino, and Indian (listed in no particular order!)-our cultures “add” to our unity and never take away from it. Our co-workers in all other departments are not only our friends, but our family.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왼쪽부터 유리 보로베츠 , 안나 램지, 새논 존스 ,신디 로즈나우  
▲ From Left : Yuri Vorobets, Anna Ramsey, Shannon Jones, and Cindy Rosenow

1. 부서명 : 회계부서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4명으로 유리 보로베츠 과장은 회계부서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며 새논 존슨 사원은 월간, 연간 재정보고서 준비를 포함해 회계보고 사항들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신디 로즈나우 사원은 매입채무 계정과 급여를, 안나 램지 사원은 수금과 매출채권 계정을 맡고 있다.

3. 하고싶은 말

알로콥 회계부서에서 인사드립니다.

1. Department : Accounting Department

2. Member Introductions

The team consists of four members. Team Manager Yuri Vorobets oversees all of the Accounting Department’s activities. Senior Accountant Shannon Jones is responsible for the account reporting requirement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monthly and annual financial statements. Staff Accountant Cindy Rosenow is in charge of accounts payable and payroll. Executive Assistant Anna Ramsey is responsible for collections and accounts receivable.

3. Greetings

Hello from the Aloecorp Accounting Department.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and Namyang China*



▲ 왼쪽부터 헬렌 자이, 수잔 펑, 켈리 첸, 앨리스 펑, 코코 후앙, 샤론 우, 린다 리  
▲ From Left : Helen Zhai, Susan Peng, Kelly Chen, Alice Feng, Coco Huang, Sharon Wu, Linda Li

1. 부서명 : 회계 부서

2. 구성원들의 소개

**알로콥 중국 (Aloecorp China)**

경영본부의 최 고참인 린다 리 부장은 실제 살림꾼처럼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인사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한다. 일터에서는 부원들의 리더, 인생에 있어서는 친언니 혹은 누나 같은 상사이다. 회계 팀장인 앨리스 펑은 알로콥 중국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내 “미인”으로 유명한 수잔 펑은 알로콥 중국의 회계원이자 남양 중국의 출납원으로 활약 중이다. 팀의 막내인 켈리 첸은 알로콥 중국의 출납원으로서 꼼꼼함과 열정을 겸비하였다.

**남양 중국 (Namyang China)**

샤론 우 팀장은 최근 회계팀의 일원이 되었다.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팀전체를 이끄는 리더이다. 사내 최고참 중 한 명인 코코후앙 사원은 남양중국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오는 4월에 처음으로 ‘엄마’가 될 예정이다. 수 후아 사원은 남양 중국의 회계 업무 이외에도 사무실의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3. 하고싶은 말

에코넷의 무궁한 발전과 에코네시안 여러분 및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 Department : Accounting Department

2. Member Introductions

**Aloecorp China**

Senior Manager Linda Li is the head of Management. Just like a real ‘housekeeper,’ she not only takes on accounting, but also administrative and HR work. She’s our leader in work, and an elder sister in life. Accounting Manager Alice Feng is in charge of Aloecorp China’s accounting. Accountant Susan Peng, the resident ‘beauty’ of our group, works as both the accountant of Aloecorp China and the cashier of Namyang China. Cashier Kelly Chen, the youngest member of the department, is at once painstaking and enthusiastic as the cashier of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Accounting Manager Sharon Wu recently joined our team. Blessed with a sweet temperament, Sharon is in charge of the whole department. Accountant Coco Huang is one of our oldest employees and will become a new mother this coming April. She is responsible for accounting at Namyang China. Accountant Su Hua handles not only Namyang’s accounting but also the daily affairs of the office.

3. Greetings

Heartfelt wishes for ECONET’s boundless success, and for health and happiness among all ECONETians and their families!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 왼쪽부터 세미라쉬코 스베틀라나 아나톨리에브나, 주이코바 류드밀라 페트로브나, 포로토포바 올가 아나톨리에브나  
▲ From Left : Semiryashk Svetlana Anatolyevna, Zhuikova Lyudmila Petrovna, Porotopopova Olga Anatolyevna

1. 부서명 : 경리팀

2. 구성원들의 소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니젠 러시아 경리팀을 소개합니다. 세미라쉬코 스베틀라나 아나톨리에브나(Semiryashk Svetlana Anatolyevna) 경리장은 현금 입/출금 통제, 회사 재정상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경리 보고서 작성을 감독하고, 포로토포바 올가 아나톨리에브나(Porotopopova Olga Anatolyevna)는 경리사원으로 세금 업무(세금계산, 보고서 작성) 및 급여(급여 및 관련수당 계산), 각종 경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를 보고한다. 주이코바 류드밀라 페트로브나(Zhuikova Lyudmila Petrovna)도 경리사원으로 일반적인 경리 서류 관리 및 고정자산(생산물 및 재산관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하고 싶은 말

에코넷 가족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길 바랍니다.

1. Department : Accounting Team

2. Member Introductions

Unigen Russia’s Accounting Team comprises three outstanding members. Chief Accountant Semiryashk Svetlana Anatolyevna controls incoming/outgoing cash flow, and oversees the accurate and speedy compilation of accounting reports to ascertain the company’s financial results. Accountant Porotopopova Olga Anatolyevna undertakes jobs related to tax (calculation and reporting) and payroll (computing salaries and related compensation), as well as preparing and submitting various accounting reports. Accountant Zhuikova Lyudmila Petrovna handles day-to-day accounting documentation while managing, implementing, and ascertaining fixed assets (managing products and holdings).

3. Greetings

Together with the entire ECONET family, we strive to successfully fulfill our role within the company and enhance the abilities of each team member.



# 에코넷으로의 초대

## 서버트 리더십 실천의 본보기

2004년 하이난에서 워크숍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누군가 일일이 열대과일 껍질을 까서 한 조각씩 나눠주며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니베라 정찬수 부사장이다. 그때 붙여진 별명이 '서버트'였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 남몰래 실천하고 있는 서버트 리더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2006년 오픈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음'에서 서버트가 되어 음식을 서비스하는 정찬수 부사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유니베라 코리아는 2003년부터 유니베라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실천하고 임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쿨앤짱'으로 선정, 포상하고 있다. 정찬수 부사장은 쿨앤짱이 된 임직원의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을 함께 초대해서 근사한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직접 서버트를 하는가 하면 홀서빙 매니저처럼 요리의 이름과 특징,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 서비스를 받아본 직원들의 감동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에 완전 감동. 이렇게 맛있고 근사한 식사는 처음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요리라 당황스러웠는데,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는 정성이 고마웠어요.”

“쿨앤짱 선정 기념으로 부사장님과 함께 식사하는 줄만 알았는데, 부사장님께서서는 서버트만 하시고 식사는 우리 가족끼리

했어요. 놀라웠죠.”

“진정한 서버트 리더십을 느꼈어요.”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로구나.

나도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Welcome to ECONET

### 임직원의 가족들도 함께 사랑을 느끼는 자리

정찬수 부사장은 처음 서버트를 시작할 때 쿨앤짱이 된 직원의 가족들이 유니베라에 다니는 우리 아빠, 엄마, 형, 누나가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유니베라의 사랑도 함께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다는 속내를 말했다. 임직원과 친해지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곳의 하나로 '이음'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작 본인은 저녁식사로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 접시를 나르고 물을 따르고, 요리를 설명하면서, 마음은 뿌듯해지고 배까지 부른 듯했다고……

그런 마음이 바로 서버트 리더십이 아닐까?

또한 정찬수 부사장은 주기적으로 사원과 개별 미팅을 하면서 경청하는 연습 중이라고 한다.





# Invitation to ECONET



## A Model of Servant Leadership in Action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Some of you may remember a certain someone who put love into practice during the heat of the 2004 Hainan Workshop by personally cutting and peeling pieces of tropical fruit and handing them out to everyone present. That certain someone was Univera’s executive vice president, Mr. Chansoo Chung. You may also remember that the nickname he earned at the time was none other than ‘Servant.’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another act of servant leadership that Mr. Chung has been secretly putting into practice since his return to Korea.*

Executive Vice President Chung was captured on film while serving food at the Italian restaurant Eum, which opened in 2006. Since 2003, Univera Korea has been recognizing members of the Univera family who embody our true values and set an example to the entire

staff and executives by bestowing them with the ‘Cool and Nice’ award. Mr. Chung not only invited the recipients of these awards, along with their families, co-workers, and friends, to a sumptuous dinner and waited on them himself, but in the manner of a true

maitred’ he also solicitously explained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dish and the proper way to eat it.

### Testimonials from Univera Employees Who Have Been Served by Mr. Chung

“I was utterly floored by the unexpected service. I’ve never had a more delicious and splendid meal.”

“I was confused by the unfamiliar dishes, so I really appreciated his earnest and detailed explanations.”

“I thought we were just invited to dine with Mr. Chung in recognition of the award, but he devoted himself to waiting on us and we were the only ones eating. It was incredible.”

“I feel like I’ve seen true servant leadership in action.”

“I never knew how wonderful it could feel to be sincerely served. It made me want to become someone who can serve others, too.”

### An Occasion for Employees’ Families to Share the Love

Executive Vice President Chung confided that when he first began serving Univera employees at Eum, his goal was to help the families of ‘Cool and Nice’ honorees to feel pride in their fathers, mothers, brothers, or sisters for being part of Univera, and to share Univera’s love with all of them. He also noted that his choice of Eum, which means ‘connection’ in Korean, as the dinner venue also stemmed from this wish to become closer to the staff and executives and to commune with them. Although he himself did not eat a bite, he recalled that purveying food, pouring water, and explaining the dishes for his special guests not only filled his heart with joy but also made him feel as if he’d eaten a hearty meal.

What could be a more eloquent expression of servant leadership?

Far from resting on his laurels, Mr. Chung is hard at work honing his capacity to listen attentively by regularly meeting with individual members of the staff.



Welcome to ECONET





##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죠

지난 11월 저는 '카니발 일레이션 호와 함께 하는 성공으로 가는 항해'라는 행사를 위해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아래는 주간 뉴스레터 'News You Can Use' [유니베라 미국에서 현장 판매원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내보내는 온라인 뉴스]에 실렸던 크루즈에 관한 저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 줄리 다비, 과장, 영업부, 유니베라 미국

### 제 1장 : 난생 처음 타본 크루즈에 대한 첫인상

저는 성공으로 가는 항해(Cruise to Success) 행사가 정말 “성공적” 이도록 하기 위해 먼저 직접 크루즈에 승선해보는 힘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운이 좋게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5월에 경험하게 될 크루즈 여행을 미리 체험해 보기 위해 5박 6일 동안 카니발 일레이션 호에 올랐는데, 한번도 크루즈 여행을 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흥미롭고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첫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카니발 관계자들을 만나 5월 운항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객실은 넓고 밝았으며 각종 세면 용품들이 완비되어 있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객실을 나와 10분 동안 구명 조끼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안내에 따라 구명 조끼를 착용하는 2천명이 넘는 탑승객들의 모습은 만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 제 2장 : 일레이션 호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인 크루즈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나중에 디저트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계단만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레이션 호의 승객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태양 아래 크루즈 여행을 한

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악, 빙고, 농구, 골프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는 못했던 1등급 헬스클럽 등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댄스 교실, 예술품 경매, 얼음 조각, 라인 댄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18노트의 속도로 부드럽게 운항해 나갔습니다.

### 제 3장 : 음식

음식을 빼놓고 크루즈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크루즈는 전통적으로 승객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일레이션 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제공되는 룸서비스, 24시간 피자 배달과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다 설명하기란 불가능 할 정도로 정말 서비스와 맛에 있어 최고였습니다. 바다 가재 요리, 샤토브리앙과 그리고 너무나 맛있었던 디저트! 한 번은 바다 가재 요리를 먹다 함께 식사하던 승객이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두 번째 바다 가재 요리가 나왔습니다. 누구 달팽이 요리 드실 분 있으신가요?

### 제 4장 : 바닷가 여행

크루즈가 항구에 정박하면 쇼핑, 낚시, 수상 스포츠, 관광 등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짐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예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크루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저는 가장 인기 있는 두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돌고래 투어와 침몰된 해적선의 보물찾기 투어(Blackbeard's Treasure Beach Snorkeling Tour)입니다. 돌고래 투어에서는 뒤집기와 점프, 각종 모기를 부리는 한 쌍의 돌고래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코키와 키스하는 제 모습을 보세요) 바닷속 보물찾기도 재미있었는데 특히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의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It was a tough job, but somebody had to do it!*

*I had the opportunity to do a site inspection last November for a field recognition event called ‘Cruise to Success onboard the Carnival Cruise Line’s ship, the Elation.’ Below is an excerpt of articles I wrote about the cruise that were included in our weekly associate email newsletter, ‘News You Can Use.’*



By Julie Darby, Senior Project Sales Manager, Univera USA

*Part 1 : First impressions of a first-time cruiser*

To be sure that our Cruise to Success will be, in fact, a success, I got the tough job to experience the cruise first-hand (lucky me!). I enjoyed 5 nights on the Carnival Cruise Line’s ship, Elation, to see what you all could expect in May. Having never cruised before, it was a real pleasure?and quite an adventure!

My first order of the day was a fabulous lunch and to meet with the Carnival reps-to be sure we have everything in order for our sailing in May. (My food review will be part 3 of 5, so be sure to watch for it!) After checking out my room (which all comes standard with toiletries and robes), I was happy to see that it was roomy and bright. Then it was off to a 10-minute orientation of wearing lifejackets and all 2,000+ passengers looking like something out of a cartoon all trying to figure out how to properly put them on. And the fun was just beginning!

*Part 2 : The Ship (Part 2 of 5)*

After getting myself unpacked and settled in to my cabin, I began my exploration of the ship. My first goal was to use only the stairs, so I could have dessert without the guilt! My second goal was all about you, making sure I

didn’t miss a thing! The passengers on the Elation were all ages, lots of families having fun in the sun. So many things to do! Music, nightlife, bingo, basketball, putt-putt golf and a first class gym (for which I had good intentions but never did use!). There were dance lessons, an art auction, ice carving, line dancing and so much more! We cruised along at about 18 knots and smooth sailing all the way.

*Part 3 : The Food (3 of 5)*

What’s a cruise without food? Cruises are legendary for making sure guests are well fed, and the Elation is no exception! There is 24-hour room service, and a 24-hour pizza counter, and ice cream.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the food. It was so good! I didn’t know anything could taste that delectable. Lobster, Chateaubriand and incredible desserts! On lobster night, some of our tablemates requested a second lobster, which was delivered without a second thought. Escargot anyone?

*Part 4 : Shore Excursions (4 of 5)*

There are so many things available to do once the ship is docked at port-shopping, fishing, water sports, sightseeing to name a few-and all can be arranged before you even leave home. Again, keeping you future cruisers in mind, I checked out the two most popular excursions: The Dolphin Experience and Blackbeard’s Treasure Beach Snorkeling Tour. On the dolphin tour, we were entertained by a pair of truly remarkable dolphins who did flips, jumps, and tricks. At the end, we were personally introduced to each of them (see me getting a kiss from Corky). The snorkeling tour was great fun, the local guides were delightful and engaging making sure everyone enjoyed the day. At the end of the day, there really is a treasure to be found, but I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so you’ll have to see for yourself! Remember, without ‘contact’ there is no ‘impact’







# 내 꿈을 신고 하늘로 비상하는 에코넷

에코넷은 저에게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에코넷이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글 맨디 리, 영업 코디네이터, 영업부, 알로콧 중국

유년시절 하늘을 바라보면 항상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높은 산봉우리를 가볍게 넘나들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수 백 개의 산과 언덕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그 소망은 어느덧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어릴 적 품었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 계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으며 2006년 7월에는 에코넷과 한 가족이 되는 행운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코넷이라는 큰 울타리가 생소하고 새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낯설은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동료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입사 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넷 가족들과 많은 경험을 함께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사 후 중국 산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고무보트를 타러 갔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팀원들의 응원에도 발끝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과 한 입에 삼켜버릴 듯 매섭게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온몸은 경직되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늪 속으로 빠져들 듯 누군가 저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만 같아 발버둥을 쳤지만 짜고 쓸쓸한 바닷물이 코와 입 속으로 쉴새 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는 순간, 구원의 손길이 저의 팔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팀원들의 도움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협동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저와 팀원이 하나로 묶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에코넷은 저에게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에코넷이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곳의 환경과 문화 모두 매력적입니다.

에코넷 웨이를 통해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부딪치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에코넷을 꿈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이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알로콧 중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CONET - Let Me Fly My Dream

ECONET offers me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 believe ECONET, which pays much attention to learning and growing, will grow faster and faster.

By Mandy Li, Sales Coordinator, Sales Department, Aloecorp China

When I was a little girl, looking up to the blue sky, I always could see an eagle flying in the sky; then it flew over the high peak of mountains which people would spend more time in reaching. Gradually a kind of idea that one day I would become an eagle flying in the vast sky, flew over hundreds of hills and mountains to explore the colorful world outside, came up to my mind. As time went by, this feeling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nd spurs me on heading forward my

After graduation from the normal university, I ended my college life. However, the idea which came up to me when I was small is never died out. Driven by this faith, during the past four years, I did my best to study hard and improve myself. Seeing the numerous diplomas, I felt that I was nearer and nearer to my dream.

In July, 2006, perhaps because of my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it was a great honor for me to be admitted by ECONET, by this big and happy family. In other words, we chose each other.

I began to experience my new life in this big family. Everything is new for me-a

new comer. But it seemed that I have been a member of them. All the colleagues treated me very well, they taught me not only how to deal with my own business, but also how to improve myself etc. After joining this family, I came across many difficulties. With the help of the members in my family I overcame them.



I have had lots of experiences, among them; there is an unforgettable one when ...

After my coming into this family, we had a seminar in Sanya, where we went rubber boating.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be ‘thrown’ into the sea. The sea was so deep and the wave was so strong that I felt very nervous although my team members told me again and again: “don’t worry! We are here for you.” The moment we fell into the sea, my thought stopped. I felt helpless and panic swept across me. I struggled to keep myself afloat but failed. The bitter and salty sea water filled my mouth and nose. I was in despair and though I was dying when suddenly a hand held my arm firmly.

What a relief! With the help of my team members .I learnt first time in my life to swim. And I will never be afraid of the sea any longer. It was really an interesting and thrilling experience that I will never forget. That time I realize what the true team spirit was! It is this kind of team spirit that units us together!

ECONET offers me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 believe ECONET, which pays much attention to learning and growing, will grow faster and faster. The environment and the culture here is very attractive to me.

It is a great honor to introduce myself t all of you through the ECONET Way.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and expanding my experience under your help. I hope we can work hard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we can share our dreams, feelings and so on together.

Welcome to China! Welcome to Hainan! Welcome to Hainan Aloecorp!



## L'initié PhytoWhite

## 아름다운 여성의 필수 조건! 환한 피부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아름다운 여성의 피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흔히 백옥(白玉) 같다고 한다. 그만큼 하얗고 환한 피부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백옥 같은 피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뜻도 포함된다. 요즘처럼 각종 공해 오염물질로 뒤덮인 도시에서 바쁜 일상 생활에 쫓기며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백옥 같은 피부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유니베라 코리아에서는 파이토로지스(PhytoLogix™)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천연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피부 본래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밝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화장품인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피부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는 색소 침착 방지부터 제거까지 이뤄지는 토탈 케어로 다음과 같은 4단계 미백 케어 시스템(4Step PhytoWhite Tracking System)이라는 차별성을 가진다.

#### 1 단계 • 색소 침착 초기방지 ▷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컨센트레이티드 에센스

#### 2 단계 • 색소 침착 억제 ▷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 3 단계 • 색소 침착 관리 ▷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

#### 4 단계 • 색소 침착 배출 ▷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



이와 같은 4단계 미백 케어 시스템으로 부분적인 관리만 가능했던 타제품에 비해 색소 침착의 모든 단계를 관리해주는 획기적인 토탈 미백 케어가 가능해진다.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의 파이토 화이트 콤플렉스(PhytoWhite Complex), 알로화이트(Aloewhite), 유용성 감초 추출물, 유채꽃 추출물, 액티브 알로에 등의 주요 기능성 성분들은 천연 미백 약용 식물 성분들로 뛰어난 치료 기능이 있어 아름다운 피부로 가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유효성분이 피부에 어느 정도 흡수되느냐가 관건이다.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의 경우 유니베라의 독자적인 파이토 캐리어 시스템(Phyto Carrier System)을 기반으로 모든 기능성 성분의 생리학적 이용률을 극대화시켰다.

유니베라의 기술력으로 태어난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를 사용한다면 맑고 투명한 백옥 같은 피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L'initie  
PhytoWhite

## A Prerequisite for Feminine Beauty: Luminous Skin

By Park Jeong Ah,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Beautiful skin is often compared to white jade, an analogy that emphasizes the vital importance of fair, luminous skin as a prerequisite of feminine beauty. This analogy also indicates how rare and difficult it is to attain such bright, flawless skin. For today's women, who live hectic, stress-filled lives in heavily polluted urban environments, the idea of having skin like white jade may seem like a mere dream.

Using a unique and revolutionary technology called PhytoLogix™, Univera Korea has unveiled PhytoWhite, a new cosmetic brand for skin whitening. PhytoWhite uses natural botanical extracts to dramatically enhance the skin's innate functions while effectively improving such skin problems as discoloration to reveal clear, bright, and transparent skin.

### L'initie PhytoWhite: The Radiance of Clear, Transparent Skin

L'initie PhytoWhite provides total skin whitening care from the prevention of discoloration to its effective elimination. What makes this product truly unique is its 4 Step PhytoWhite Tracking System.

- Step 1 • Early prevention of discoloration ▷  
L'initie PhytoWhite Concentrated Essence
- Step 2 • Suppression of discoloration ▷  
L'initie PhytoWhite Moisturizing Cream
- Step 3 • Treatment of discoloration ▷  
L'initie PhytoWhite Intensive Program
- Step 4 • Expulsion of discoloration ▷  
L'initie PhytoWhite Intensive Program



Unlike other products, which only offer partial or localized treatment, the 4 Step PhytoWhite Tracking System enables revolutionary total whitening care that manages and treats all phases of discoloration. PhytoWhite's high-performance ingredients-such as the PhytoWhite Complex, Aloewhite, oil-soluble licorice extract, rape flower extract, and Active Aloe-are derived from all-natural medicinal plants with whitening properties. They not only work to enhance the beauty of your skin, but also help to maintain its overall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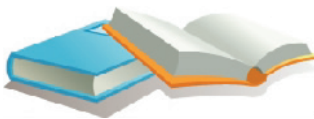
A crucial factor in high-performance cosmetics is how much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absorbed by the skin. Through Univera's patented Phyto Carrier System, L'initie PhytoWhite maximizes the physiological utilization rate of all its high-performance ingredients.

The result of Univera's remarkable technological prowess, L'initie PhytoWhite will turn the clarity and transparency of white jade from a skin dream to a skin reality.



L'initie  
PhytoWhite





# 무지개 원리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글 김수겸 상무, 생산관리, 알로콧 미국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책 표지에 커다랗게 쓰여진 이 구절을 보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면 세상살이가 뭐 어렵겠냐는 자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장이 하나 둘 넘어갈수록 그만큼의 희망이 솟아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이한 경력의 차동엽 신부님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신앙적인 교리보다는 우리가 늘 부딪치며 엮여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행복의 법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고 먹구름 뒤 찬란하게 핀 무지개를 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실전용 행복가이드 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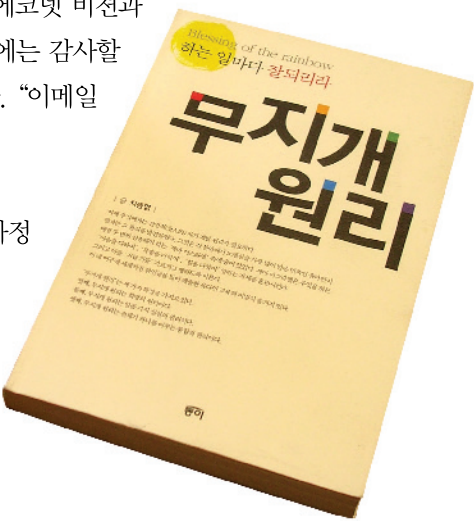
저자는 유대인이 매일 두 번씩 암송해야 하는 ‘셰마 이스라엘’에 숨겨진 자기계발 원리를 인간의 두 뇌구조와 심리구조에 접목하여 무지개 원리라는 독창적인 의견을 펼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꿈을 품으라. 성취를 믿으라. 말을 다스리라. 습관을 길들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개인적으로는 ‘그리는 대로 된다’라는 구절이 좋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 에코넷 비전과 다를 바 없음을 에코네시안 여러분은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항상 감사하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위안을 줍니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이 책을 돌려 읽을 수 없으니 가정당 최소 두 권은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책을 보내주신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선물로 주고 간 후배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다른 목표를 성취한 나의 모습을 그려볼까 합니다.



## The Blessing of the Rainbow

Everything You Undertake Shall Be a Success

By Joseph Kim,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Aloecorp USA

“Everything you undertake shall be a success.” When I saw these words printed in large type on the book’s cover, my lips curled up in a sardonic smile. How easy would it be, I mused cynically, if life were such smooth sailing all the way? To my surprise, however, I found my hopes soaring with each new page I turned. No one can read this book without truly and sincerely reevaluating themselves. It inspires confidence. It helps you set a goal.

The author of this book is Father Dongyeop Cha, a man whose resume bespeaks a rather peculiar career. However, The Blessing of the Rainbow does not focus on religious tenets and doctrines; rather, it reveals to us the principles of happiness that can be discovered in our usual, day-to-day lives. And by practicing these principles, Father Cha enjoins us to change our foolish way of thinking and instead see the radiant rainbow streaming across the sky after the dark clouds have passed. In short, this book is a practical guide to achieving happiness.

By compounding the principle of self-cultivation underlying the ‘Shema Israel,’ a prayer that must be recited twice daily by persons of the Jewish faith, with the study of the neurological and psychological composition of human beings, the author expounds a unique edict dubbed the ‘blessing of the rainbow.’ This edict urges us to think positively, to sow the seeds of wisdom, to nurture dreams, to believe in accomplishment, to govern our words, to master our habits, and never to give up.

My favorite passage in the entire book is the dictum, ‘Things turn out as you envision them.’ You will easily recognize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counsel is no different than our own ECONET vision. In a section on ‘always being grateful,’ another memorable passage serves as an unexpected reminder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things in our lives that we should be thankful for: “If you find yourself buried under a mountain of emails, that is simply an indication of the multitudes of people who are thinking of you.”

Before you start reading Father Cha’s book, however, I must warn you: make sure to procure at least two copies per household, since you won’t want to take turns reading it even with your own wife. It’s that engrossing.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my mother, who sent me this book all the way from Korea, and my junior colleague, who gave it to me as a gift.

And now, I think I’ll get back to envisioning myself accomplishing yet another new goal!





몸에 이롭고 맛깔스런 점심을 차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은 필수적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맛이 있어야 한다.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만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조리하면 건강에 이로우면서도 맛을 낼 수 있다. 다시마, 말린 버섯, 멸치 등의 천연 조미료가 그러한 예인데 이 재료들은 감칠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후 갈증이나 졸음을 불러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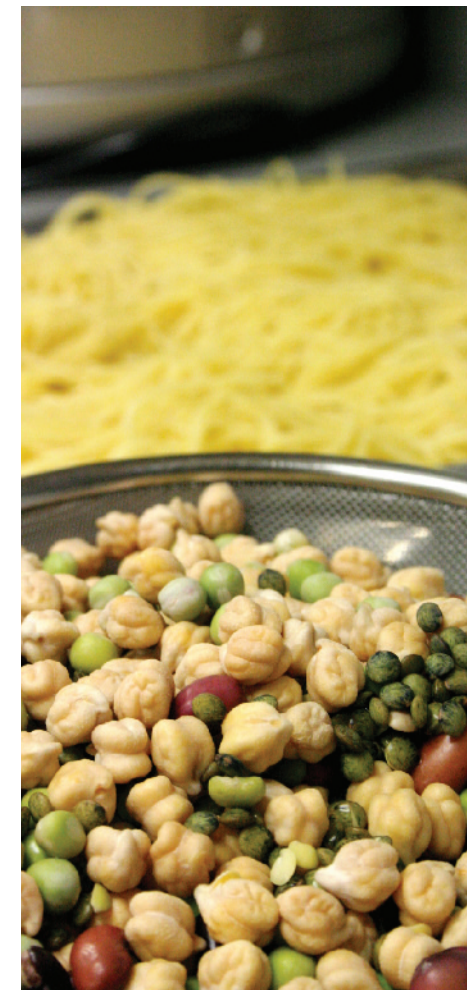
둘째, 계절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농업기술이 발전한 요즘 제철 음식이 따로 없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하늘과 땅이 빚어낸 음식 재료의 풍미를 사람이 똑 같이 흉내내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또한 사람 역시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제철 음식을 먹어야만 음식으로 인한 속병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와 조리법에 있어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를테면 매일 반찬으로 먹기 힘든 유제품은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칼슘을 보충하고, 칼슘 섭취를 돕기 위해서는 나트륨의 양을 줄여야 하므로 소금 간을 덜해야 한다.

넷째, 적당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인 하루 적당량에 맞춰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지방이라도 견과류를 이용하고 튀김보다 시간과 공이 더 들더라도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택한다.

마지막으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재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근본이 불분명하면서 입에만 맛있는 식품은 그만큼의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공 화학 조미료는 자연을 닮은 사람의 몸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린다.

이음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음식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에코네시안은 물론 이음을 찾는 모든 이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 건강한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글 김민경 대리, (주)이음에프엔비

점심(點心)은 글자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요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하루 두 끼를 먹던 옛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의 간단한 식사를 일컫는 데서 온 것이다. 하지만 일일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세끼 식사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은 오전 피로를 풀고 오후 활동에 열량을 보충해주는 하루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침을 거르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심이 갖는 끼니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eum

- 아래 쿠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케이크와 계절 샐러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쿠폰은 200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저녁 식사 시간에 한 테이블 당 한 장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 주문 전에 미리 제시하셔야 합니다.







Start Your Day with Healthy Meals



By Minkyong Kim, Assistant Manager, Eum F&B

The Chinese characters comprising the Korean word for lunch, literally translated as ‘to make a small mark on the heart,’ means to take light refreshment. The term derives from ancient China, where the custom was to take a light repast between breakfast and dinner to tide oneself over between the two major meals of the day. However, as daily labor hours increased and eating three meals a day became common practice, lunch came to serve as a kind of ‘bridge’ for the day, resolving the morning’s fatigue and providing renewed fuel for the afternoon’s activities. Indeed, with growing numbers of people skipping breakfast altogether and consuming lighter dinners, the role of ‘the lunch’ as a daily meal is becoming ever more substantial.

In preparing a healthy and delectable lunch, the following rules are absolutely essential:

First, good taste is important above all. They say good medicine is bitter, but by using a careful selection of the finest ingredients, one can achieve both good taste and healthful benefits. Natural seasonings like sea kelp, dried mushrooms, and dried anchovies are a good case in point: they offer vigorous flavor without the undesirable side effects of thirst and drowsiness.

Second, seasonal ingredients must be used. Great adva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have ensured yearlong availability for virtually all types of produce, but it remains beyond the scope of human ability to exactly replicate the taste of food wrought by the earth and sky according to the laws of nature. Moreover, human beings are also bound by the laws of nature; only by eating seasonal cuisine can food-related ailments be abated.

Third, the meal must contain a good balance of nutrients. To ensure this, any excess or insufficiency in cooking ingredients and methods must be studiously avoided. For instance, since it is difficult to use dairy products everyday, they must be periodically substituted with other calcium-rich ingredients. And since reducing sodium intake facilitates calcium absorption, salt must be used sparingly.

Fourth, an adequate amount of calories must be provided.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must be selected with an eye to meeting recommended daily requirements without excess. Nut-derived oils are preferable to others. Although demanding more time and effort than frying broiling and steaming should be the cooking methods of choice.

Finally, ingredients containing artificial additives must be eschewed. Foods that do not spoil for long periods or are tasty but whose origins are uncertain have generally been subjected to one chemical process or another. Such chemical and artificial seasonings upset the balance and harmony of the natural human body.

At Eum, great care is poured into preparing each and every dish, to ensure that all five rules are rigorously followed. Such care and effort are sure to benefit the health of not just ECONETians but all who come to eat at Eum.



eum



- If you bring the coupon below, you can enjoy your choice of the cake of the day or a seasonal salad.
- This coupon is valid through May 31, 2007.
- Limited to one coupon per table during dinner hours.
- Cannot be used with other discount offers.
- Must be presented before ordering.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 1 이병훈 총괄사장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으로 취임



이병훈 총괄사장이 지난 2월 27일 에코넷 센터에서 개최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내·외 귀빈과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축하를 받으며 협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전임 남승우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8대 협회장으로 취임하신 이병훈 신임 협회장은 (주)유니베라 총괄사장으로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차세대 리더(AYL)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경험을 갖춘 우수한 경영인입니다. 이런 분이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이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임식에 이어 새로 부임한 이병훈 신임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임기간동안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전임 남승우 협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신임 협회장으로서 올해「건강기능식품법」의 정착화와 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협회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등 협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산업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의 협회 역점사업과 업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협회장 이임식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감사패 증정 •공로상 수여 •신규 회원사 소개 및 협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 등 이었다.

### Univera Chairman Bill Lee Named Chairman of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The 18<sup>th</sup> general meeting of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KHSa) took place on Tuesday, February 27 at Univera's ECONET Center, with the attendance of over 100 VIPs and representatives from member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made during January's board meeting, Univera Chairman Bill Lee was appointed as the new KHSa chairman at this year's general meeting. His predecessor, former Chairman Seungwoo Nam, noted in his farewell address, “Univera chairman Mr. Bill Lee, who is taking his post as the KHSa's 8th chairman today, has served as our organization's vice chairman since 1996 and possesses extensive international experience, as attested by his designation as one of Asian Young Leaders (AYL)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I am delighted that such an outstanding managerial person will be leading the KHSa.”

Following the appointment ceremony, the newly-installed KHSa chairman stated, “I would like to thank Mr. Seungwoo Nam,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advancement of the health supplement industry during his time in office. As the incoming chairman, this year I will work to achieve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Supplement Act, deregu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nhancement of our industry's competitiveness, the attainment of

consumer trust in health supplements, and the KHSa's capacity for promotion to the public. By pondering the fundamental raison d'être of the KHSa, I will do my utmost to make our organization a guiding light for the entire industry.”

The meeting included various discussions regarding the association's strategic businesses and the industry's growth in 2007. Foremost items on the agenda were: • the induction of the new KHSa chairman, • report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settlement of accounts for 2006, • the announcement of business plans for 2007, • the awarding of plaques of appreciation, • the handing out of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and • the introduction of new member companies and plans for reinforcing the KHSa's functions.

### 2 승진자 교육 실시



에코넷 한국의 승진자 교육이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열려 초급 및 중견간부로서 필요한 역량을 가다듬었다. 교육 첫날 이병훈 총괄 사장은 에코넷의 미래는 매우 밝으며, 신규 승진자들과 같은 인재들이 에코넷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부단한 혁신과 역량개발을 통해 골드만 삭스 못지않은 최고의 연봉을 받는 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독려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리에서 부장에 해당하는 2007년 승진자 및 2006년 경력직 신규 입사자들을 포함 40여명이 참석했다.

#### Education for Promoted Personnel

At ECONET Korea, a training program for recently promoted personnel took place from



March 14 through 17. The program was designed for the cultivation of qualities requisite in beginning and experienced executives. On the first day, Chairman Bill Lee stressed that the future of ECONET was very bright, and that talented individuals as those who have been recently promoted should lead a vital role in the growth process of ECONET. Furthermore, he strongly enjoined that everyone work to make ECONET an organization whose salaries equal such top-ranking firms as Goldman Sachs, through ceaseless innovation and cultivation of potential. More than 40 employees, including those in assistant manager to senior manager positions who were promoted in 2007 and newly-recruited experienced personnel, took part in the training program.

### 3 에코넷 한국의 임원을 서번트 리더십 강사로 육성



지난 2월 23일 에코넷 한국의 30여 임원들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강사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에서 임원들은 사전에 준비해온 교육(안)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를 연습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여 서로의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가다듬었다. 향후 임원교육을



통해 양성한 강사들이 팀장 및 팀원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Awareness 과정과 경청 및 피드백에 대한 2007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에는 경청과 피드백에 대한 임원교육이, 4월 17일에는 임원들에 대한 경청과 피드백 강사양성교육이 실시된다.

### Grooming ECONET Korea Executives to Become Servant Leadership Lecturers



On February 23, some 30 executives from ECONET Korea received training to become lecturers on servant leadership. During this session, executives delivered practice lectures based on prepared material. The lectures were also videotaped and used for exchanging peer commentary, thus allowing participants to critique and improve one another's lecture skills. In future, the executives trained in this recent session will conduct 2007 educational sessions for team managers and members, on maintaining servant leadership awareness, listening attentively, and giving feedback. Accordingly, an executive education session on listening attentively and giving feedback will take place on April 9, followed by a lecturer training session on the same subjects on April 17.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4 유니베라 성실납세자로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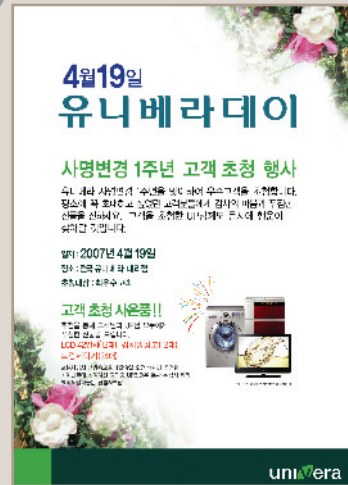
유니베라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 6일 제 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유니베라는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세무관서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투명경영에 어울리는 유니베라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 41st Taxpayers' Day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Finance & Economy

On March 6, 2007, in commemoration of the 41st Taxpayer's Day, Univera was honored as a "Faithful Taxpayer" and awarded a commendation by the Minister of Finance & Economy. As a recipient of the title of "Faithful Taxpayer," Univera will now be able to use a specially-reserved window at government tax offices and enjoy various privileges including exemption from audits over the next two years. The commendation reflects Univera's commitment to transparent management.

#### 5 4월 19일 유니베라데이 기념 행사



유니베라 창립 31주년을 맞는 4월 19일을 기념하여 본사와 대리점에서 유니베라데이 기념 행사가 열린다. 유니베라 사명 변경 1주년을 함께 기념하기도 하는 이 행사에서는 우수고객초청 사은행사와 축하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유니베라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함께 전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 Univera Day Celebration on April 19

On April 19, Univera will celebrate the 31st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 commemorative ceremony will take place at Univera headquarters and at various Univera retailers. This ceremony, which also celebrates the first anniversary of Univera's adoption of its new corporate name,

will include an invitation-only appreciation event for preferred customers, followed by celebratory festivities. The day's events will not only commemorate Univera's anniversary, but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vey our appreciation to our customers.

#### 6 광주 전남팀 오픈



광주 전남지역에 새로운 영업팀이 신설되어 1월 25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본사 임직원, 지역 대리점 사장님 등 총 40여분이 참석해 유니베라 광주 전남팀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신영익 팀장과 팀원들은 광주, 전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 전남팀의 신설은 2007년 유니베라 한국의 Jump-Up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 Launching of the Gwangju-Jeollanam Team

As part of both Univera Korea's "Jump Up" strategy in 2007 and plans for long-term growth, a new sales team was established in Gwangju, Jeollanam-do province. At the ceremony celebrating its launching, which took place on January 25, some 40 guests including the staff and executives of Univera headquarters and the heads of regional retailers gathered together to express their good wishes for the future of the new team. Team Manager Youngok Shin and his team members vowed to do their very best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Gwangju, Jeollanam-do and Jeju-do regions.

#### 7 GBC미팅

유니베라 미국과 유니베라 한국은 지난 2월 21일 GBC미팅을 갖고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브랜드 운영, GBC 역할과 배송 등 양사의 중요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GBC 미팅에서는 유니베라 미국의 Stuart Ochilltree사장, Rich Razgaitis부사장, Susan Haeger상무, Stephen Cherniske 사장 겸 CSO(Chief Science Officer)와 유니베라 한국의 김영환 사장, 정찬수부사장, 조복희 상무보, 이주연팀장이 참석했다.

### GBC Meeting

On February 21, Univera Korea and Univera USA convened for a GBC meeting. In attendance were President Stuart Ochilltree, Executive Vice President Rich Razgaitis, Vice President Susan Haeger, and President & Chief Science Officer, Stephen Cherniske from Univera USA, and President & CEO Youngwhan Kim, Executive Vice President Chansoo Chung, Managing Director Bokhee Cho, and Team Manager Jooyoun Yi from Univera Korea.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company's key global business strategies, including its product portfolio strategy, brand management, the role of the GBC and shipping.

#### 8 물류센터 기공식



지난 2월 16일 유니베라 제1호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려 유니베라 물류 선진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53-3번지 일원에 소재할 이 물류센터는 보관부터 출하까지 작업자의 환경은 물론 제품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되고



유통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류센터가 될 것이다.

## Distribution Center Ground-Breaking Ceremony



As the first step in the evolution of Univera's distribution capabilities,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Univera's Distribution Center No. 1 was held on February 16. The new distribution center, to be located in the area of Iweol-myeon, Jincheon-gun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is set to become the most beautiful distribution center in Korea, where not only the workers, but also the products themselves will enjoy the most ideal environment possible over the entire process from storage to shipment.

## 9 재테크 노하우 교육 실시



지난 3월 5일 유니베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임직원들은 한국재무설계(주)의 오종운 CFP를 통해 멋진 삶을 위한 재테크 전략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강의는 사내 제안제도인 'Let's'의 임직원 제안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 Educational Session on "Financial Technology" Know-How

On March 5, following a monthly meeting, an educational session on financial technology was held for the benefit of the staff and executives at Univera. With CFP Jongyun Oh of Korea Financial Planning as guest lecturer, the session imparted valuable strategic know-how on leveraging one's financial assets into a better life. The educational session is doub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realization of a suggestion from Univera employees through the company-wide suggestion system "Let's."

## 10 유니베라 한국 임직원 'Jump' 공연 관람

유니베라는 1월 25일, 2007년 경영방침인 'Jump-up'을 전체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Jump'라는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이 공연은 2년 연속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판매순위 1위,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피콕극장에서 전회 매진 등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국 토종 공연으로 태권도와 같은 동양무술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공연을 보여주고 있어 유니베라의 성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김영환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이 참석하여 유니베라의 신나는 'Jump-up'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 Univera Korea Employees' Viewing of "Jump"

On January 25, the entire staff and executives of Univera Korea attended a performance of "Jump," in an effort to cement a shared understanding of "Jump Up," Univera's management philosophy for 2007. "Jump" is a Korean performance show that has been setting astonishing records around the world, achieving the highest ticket sales at Britain's Edinburgh Fringe Festival, the world's largest festival of performing arts, for two consecutive years and selling out its entire run at the Peacock Theatre in the West End, the home of the musical. The show,

which draws on Asian martial arts such as Taekwondo to stage a dynamic and vigorous performance, shares a similar philosophy with Univera's growth. The entire staff and executives, led by President Youngwhan Kim, took part in the group viewing and enjoyed an early taste of Univera's exciting "Jump Up."

## 네이처텍 / NatureTech

## 11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



네이처텍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3일 제 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대전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네이처텍의 표창 수상은 지역발전에 힘쓰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 Daejeon Tax Service Commissioner's Commendation for the 41st Taxpayers' Day



On March 3, 2007, in commemoration of the 41st Taxpayers' Day, NatureTech was named a "Faithful Taxpayer" and awarded a commendat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Daejeon office. The award recognizes

NatureTech's efforts toward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a wholesome taxpaying culture. President Youngtae Kim accepted the commendation on behalf of the entire company.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12 유니젠 아시아 영업팀 일본시장 본격 공략 개시



유니젠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동식 사장을 비롯한 아시아 영업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 동안 일본 건식 및 화장품업체의 주요 고객사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 유니젠은 이번 고객사 방문을 통해 Shiseido, Ajinomoto, Fancl 등 세계적인 건식 및 화장품사의 제품개발진과 원료제품 및 공급계약에 대한 활발한 협의와 상담을 가졌다.

이번 일본 고객사 방문에는 특별히 유니젠 미국의 Regan Mile사장과 Qi Jia 연구소장이 유니젠 한국의 영업활동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한미 양사간의 공조와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니젠 한국은 금년을 일본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삼고 일본 내 우수 고객사를 발굴하여 본격적인 아시아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Unigen's Asian Sales Team Begins Its Charge on the Japanese Market

The Asian Sales Team, led by Unigen Korea CEO Dong-sik Kim, visited important client companies in Japan's health supplement and



cosmetics industries and engaged in active marketing activities over a period of six days, from January 15 through 20. During this tour of Japan, which constituted the first step in Unigen's newly-launching foray into the Japanese market, the Asian Sales Team held lively consultations and discussions on supplying raw materials and products with the product development teams of such world-renowned Japanese companies as Shiseido, Ajinomoto, and Fancil.

President Regan Mile and Director of Research Qi Jia of Unigen USA also participated in this tour to support Unigen Korea's sales activities, making this an invaluable occasion for further cementing the cooperative bond between Unigen's Korean and American counterparts. Unigen Korea plans to make 2007 the inaugural year of its advancement into the Japanese market, and has set its sights on uncovering outstanding client companies in Japan for a full-on assault on the Asian region. The Asian Sales Team plans to continue making vigorous efforts toward this goal.

## 13 HPTLC장비 도입



유니젠 한국에서는 최근 HPTLC장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 및 실험역량을 강화 했다. HPTLC장비의 도입에 따라 생약의 진위여부 확인, 금지약물 및 첨가물 확인 등이 가능해 졌고, 생약의 분리/분석함에 있어 전과정이 자동화 됨으로써 기존 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장비는 실험자간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여 재현성 및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장비에서 검출이 불가능한 성분을 검출 할 수 있으며 분석시간이 짧고 저비용으로도 분리/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HPTLC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Adoption of HPTLC Equipment

Unigen Korea recently introduced HPTLC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equipment into its arsenal, thus making it possible to screen herbal medicine for authenticity and addition of prohibited chemicals or additives. In addition, the new equipment automates the entire process of separating and analyzing herbal medicine, a change that will enable the analysis of larger volumes of samples within a shorter timeframe. Because HPTLC equipment minimizes errors that can occur among laboratory personnel, it offers the added advantages of outstanding accuracy. Most of all, it is capable of detecting substances that cannot be detected using existing equipment. HPTCL makes it possible to separate and analyze samples faster and at lower cost, allowing for more accurate and effective research.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 14 에코넷 농구팀의 첫 경기

레이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주관하는 남자 겨울 농구 리그에서 에코넷 미국이 한 팀을 후원한다. 8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 리그는 1월 14일 일요일



에 연습경기로 시작하여 3월에 있을 최종 네 팀의 결승 경기로 끝이 난다. 에코넷 농구팀은 에릭 밀러(고객관리 팀원, 유니베라 미국)를 필두로 하여 에코넷 미국의 여러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젊음과 운동정신으로 무장된 막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에코넷 미국팀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비교적 작은 신장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상대팀에 밀리는 듯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불굴의 자세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코트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부터 관중석의 팬들에 이르기까지 에코넷 미국을 멋지게 보여주었다.

### ECONET Basket Ball Team's first game



ECONET USA is sponsoring a team for the Men's Winter Basketball League coordinated through the Lacey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There will be eight weeks of play which began with a practice game on Sunday, January 14, and will end with "Final Four" tournament showdowns in March. The ECONET team has been organized by Eric Miller (Univera Customer Care, Univera USA) and members of the ECONET USA (Lacey) family were invited to participate.

Although ECONET USA has molded a competitive team with youth and athleticism, they got off to a rough start in their opening game. The team's lack of height may be a deterrent when it comes to rebounding, but their never-quit attitude is definitely a sign of good things to come in future games. From the talent on the court to the fans in the crowd, ECONET USA was well represented.

## 15 이병훈 총괄 사장과 함께 한 특별한 서번트 리더 오찬 회의 - 전통과 유산



특별한 서번트 리더 오찬회의가 2월 13일 화요일에 있었다. 원래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 논의하던 월간회의였으나, 이번 달에는 이병훈 총괄 사장을 이 달의 연사로 초청하게 됨에 따라 전 직원이 참석하게 되었다. 5분간 고 이연호 회장에 대한 영상을 상영한 후 이병훈 총괄 사장은 수익성 높은 다른 사업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알로에 재배와 보급에만 전념하셨던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셨던 진정한 서번트 리더에 대해 모든 에코네시안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Special Servant Leader Luncheon with Bill Lee - Tradition and Legacy



There was a special Servant Leader Luncheon on Tuesday, February 13. This meeting is a monthly gathering for managers and above to discuss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n being Servant Leaders. With our Chairman, Bill Lee, as this month's speaker, the meeting was extended to include all employees. After sharing the 5 minute



DVD of Yunho Lee, Bill Lee talked about his father's stubbornness in growing and sharing aloe plants while sacrificing other profitable opportunities. It was a great chance for all ECONETians in Lacey to think about a true Servant Leader who worked for something beneficial to others knowing it might not see the light in his time.

## 16 에코넷 미국의 발렌타데이 문화



미국 카드 협회에 의하면 매해 1조에 달하는 발렌타인데이 카드가 발송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발렌타인 데이는 크리스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카드를 많이 보내는 기념일이 되는 셈이다. 레이션의 에코네시안 들이 어떻게 이 날을 보내는지 엿보기로 하자.

### Valentine's Day



The U.S. Greeting Card Association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one billion valentine cards are sent each year worldwide, making Valentine's Day the second largest card-sending holiday of the year behind Christmas. Let's see how ECONETians in Lacey celebrate Valentine's day.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 17 “기회의 땅을 우리 품에” 한·중·일·러 연해주 4국지 (3월 22일자 한국경제 사회면)



유니베라는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약용작물 황금(黃耆)을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기른다. 유니베라는 올해 황금 뿌리를 미국 기업 콜게이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하고 재배 면적을 넓히고 있다. 유니베라가 장기임대로 확보한 땅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까운 650만 평.

유니베라가 생산하는 황금의 경쟁력은 품질이 우수하며 균일하다는 것. 유니베라는 바이오벤처업을 세워 이 작물의 품질이 결정되는 성장 시기와 조건을 알아냈다. 이 결과 다국적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 황금 뿌리와 분말을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The Land of Opportunity into Our Arms” : Korea, China, Japan, and Russia's Primorsky (March 22 issue of The Korea Economic Daily, society section)

Univera cultivates Scutellaria baicalensis, a medicinal plant that is used to treat arthritis, in Russia's border regions. This year, Univera signed a contract to export this unique herb, also known as “Gold” in Korean, to the U.S.-based firm Colgate and is duly expanding the area of cultivation. The land Univera currently holds under long-term lease is 6.5 million pyeong, equivalent to 21,4 million m<sup>2</sup>, equal to nearly three times the area of Yeouido.

The competitive edge enjoyed by Univera's herbal “Gold” is that its consistently outstanding quality. Through its newly-established bio-venture company, Univera identified the timeframe and condition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Scutellaria baicalensis. As a result, it is now able to export “Gold” in root and powdered form to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ealth supplement producers at advantageous prices.

## 신입사원 / New Hire



▲ 손호륜 대리, 경영정보팀, 에코넷기업본부/  
Horyoon Son, Assistant Manager, IT Shared Information Team, ECONET Korea Holdings



▲ 광희섭 사원, 생산본부, 공무팀, 네이쳐텍/  
Gwakhee Seob, Production Division, Engineer Team, NatureTech



▲ 조은성 사원, 생산본부, 공무팀, 네이쳐텍/  
Eunsung Cho, Production Division, Engineer Team, NatureTech



▲ 조영일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쳐텍/  
Youngil Cho, Asistant Manager, General Magement Division, Strategy Planning Team, NatureTech



▲ 김지연 대리, 영업본부, 영업1팀, 네이쳐텍/  
Jeeyeoun Kim, A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Sales 1 Team, NatureTech



▲ 정명균 사원, 연구개발실, 연구개발팀, 네이쳐텍/  
Jungmueung Gyun, Reserch Development Division, Reserch Development Team, NatureTech



▲ 강석영 사원, 연구개발실, 품질혁신팀, 네이쳐텍/  
Sukyoung Kang, Reserch Development Division, Quality Innoveation Team, NatureTech



▲ 김성무 사원,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Sungmu Kim, General Management Team, Univera Korea



▲ 이민영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Minyoung Lee, Eucation Team, Univera Korea



▲ 김은희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Eunhee Kim, Eucation Team, Univera Korea



▲ 김혜연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Hyeyeon Kim, Eucation Team, Univera Korea



▲ 황선희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Sunhee Hwang, Eucation Team, Univera Korea



▲ 박지연 사원,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iyoun Park, Sales Panning Team, Univera Korea



▲ 이가은 사원, 광주전남팀, 유니베라 한국/  
Gaeun Lee, Gwangjujun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노양은 사원, 광주전남팀, 유니베라 한국/  
Yangeun Ro, Gwangjujun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천현직 사원, 대구경북팀,  
유니베라 한국/  
Hyunjig Chun, DaeguKyungbuk  
Sales Team, Univera Korea



▲ 김수범 사원, 부산경남팀,  
유니베라 한국/  
Soobum Kim, Busankyung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임은혜 사원, 고객센터팀,  
유니베라 한국/  
Eunhye Lim, CS Team,  
Univera Korea



▲ 서성봉 사원, 전략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Sungbong Seo, Strategy &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정희진 사원 마케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Heejin Jeong, Marketing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김정화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Jeonghwa Kim,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최병일 사원연구원,  
생리활성검정팀, 유니젠 한국/  
Byongil Choi, Researcher  
Bioassay&Discovery Team,  
Unigen Korea



▲ 이보수 사원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Bosu Lee, Researcher,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황지혜 사원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Jihye Hwang, Researcher,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크리스틴 아리아스, 고객관리사원  
1급, 유니베라 미국/  
Christine Arias, CSR I,  
Univera USA



▲ 나타샤 바이스, 고객관리 사원 1  
급, 유니베라 미국/  
Natascha Bice, CSR I,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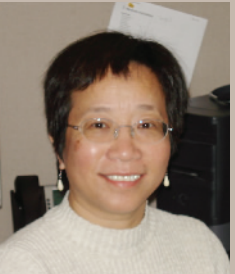
▲ 릭 그릭스비, Operation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Rick Grigsby, Director of  
Operations, Univera USA



▲ 파티마 플로어스, 사우스 헤이븐  
물류센터 직원, 유니베라 미국/  
Fatima Flores, Warehouse Personnel,  
Southaven , Univera USA



▲ 카르멘 허텔, 연구원,  
유니젠 미국/  
Carmen Hertel,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 줄리 썽-크랭크, 상임 생화학  
분석 과학자, 유니젠 미국/  
Julie Tseng-Crank, Senior  
BioAssay Scientist, Unigen USA



▲ 샌딕 낸디,  
유기화학자, 유니젠 미국/  
Sandip Nandy, Organic  
Synthetic Chemist, Unigen USA



▲ 란 주 이산,  
공장 공장, 알로롭 중국/  
Lan Zhu Yishan, Manager,  
Factory, Aloecorp China



▲ 샤론 우 청운,  
경영부서 회계 과장, 남양 중국/  
Sharon Wu Qingyun, Accountant  
Macager, Management,  
Namyang China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

*Note for those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photos.*

▶ 커테라 캡스, 프론트 데스크 접수원,  
에코넷 미국 홀딩스/  
Kirterra Capps , Front Desk Receptionist ,  
ECONET USA Holdings

승진 / Promotions



◀ 심호영 상무보, CFO, 에코넷 한국 홀딩스 ⇨  
상무, CFO  
John Sim, Managing Director(CFO), ECONET  
Korea Holdings ⇨ Vice President(CFO)



◀ 이재은, 상무보, CKO, 에코넷 한국 홀딩스 ⇨  
상무, CKO  
James J.E. Lee, Managing Director(CKO),  
ECONET Korea Holdings ⇨ Vice President(CKO)



◀ 김정표, 차장, 비서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  
부장, 비서팀  
Jungpyo Kim, Manager, Secretary Team,  
ECONET Korea Holdings ⇨ General Manager



◀ 김기두, 대리, 경영정보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  
과장, 경영정보팀  
Kidoo Kim,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Information Team, ECONET Korea Holdings ⇨  
Manager



◀ 김진영, 대리, 연구개발실 품질혁신팀 ⇨  
김진영, 과장  
Jinyoung Kim, Assistant Manger, Reserch  
Development Divison, Quality Innoveation  
Team, NatureTech ⇨ Jinyoung Kim, Manager



◀ 윤성원, 주임,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 대리  
Sungwon Yoon, Staff, General Magement Division,  
General Mangement Dept Team, NatureTech ⇨  
Asistant Manger



◀ 박종민, 주임, 영업본부 영업1팀 ⇨ 대리  
Jongmin Park, Staff, Sales Division, Sales 1 Team  
NatureTech ⇨ Asistant Manger



◀ 박연호, 주임 영업본부 영업2팀 ⇨ 대리  
Hoya Park, Staff, Sales Division, Sales 1 Team  
NatureTech ⇨ Asistant Manger



◀ 서동욱, 주임, 경영지원본부 SCM팀 ⇨ 대리  
Dongok Seo, Staff, General Magement Division,  
SCM Team, NatureTech ⇨ Asistant Manger



◀ 이충현, 주임, 연구개발실 품질혁신팀 ⇨ 대리  
Chungheon Lee, Staff, Reserch Development  
Divison, Quality Innoveation Team, NatureTech ⇨  
Asistant Manger





◀ 박원우, P4 반장,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3 반장  
Wonwoo Park, P4 Manger,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3 Manger



◀ 박승희, P4 반장,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3 반장  
Seunghee Park, P4 Manger,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3 Manger



◀ 김종수,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Jongsoo Kim, Marketing Division, Marketing  
Planning Team, Staff,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Marketing Planning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김민정, 생명과학연구소 식품연구팀 연구원,  
유니베라 한국 ⇨ 생명과학연구소 식품연구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Minjung Kim, Institute Of Life Science,  
Researcher, Univera Korea ⇨ Institute Of Life  
Science, Junior Researcher, Univera Korea



◀ 신부희 P6 조장,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5 조장  
Boohee Shin, P6,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5



◀ 금경덕, P6 조장,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5 조장  
Kyoungduck Kum, P6,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5



◀ 심규석, 생명과학연구소 식품연구팀 연구원,  
유니베라 한국 ⇨ 생명과학연구소 식품연구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Kysuk Shim, Institute Of Life Science,  
Researcher, Univera Korea ⇨ Institute Of Life  
Science, Junior Researcher, Univera Korea



◀ 조은석, 영업본부 중부영업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중부영업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Eunseok Cho, Sales Division, Joongbu Sales  
Team, Staff,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Joongbu Sales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유후재, P6 조장,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5 조장  
Whojea Yoo, P6,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5



◀ 이용기, P7 사원,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6 사원  
Yongki Lee, P7 ,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6



◀ 김윤식, 영업본부 대구경북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대구경북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Yunsik Kim, Sales Division, DaeguKyungbuk  
Sales Team, Staff,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Marketing Panning Team,  
Univera Korea



◀ 옥민상, 영업본부 부산경남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부산경남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Minsang Ock, Sales Division, Busankyungnam  
Sales Team, Staff,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Busankyungnam Sales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김경섭, P7 사원,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6 사원  
Kungseob Kim, P7 ,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6



◀ 정성수, P7 사원,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 P6 사원  
Sungsu Jung, P7 , Production Divisi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P6



◀ 방상학,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Sanghak Bang, Strategy Planning Division,  
Strategy & Planning Team, Staff, Univera Korea ⇨  
Strategy Planning Division, Strategy & Planning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김훈경,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Hunkyoung Kim, Marketing Division, CS Team,  
Staff,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CS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김경식, 교육본부 차장/본부장, 유니베라한국 ⇨  
교육본부 부장, 유니베라 한국  
Kyungsik Kim, Education Division, Senior  
Manager/Division Manager, Univera Korea ⇨  
Education Division, General Manager/ Division  
Manager, Univera Korea



◀ 조준용, 경영전략본부 차장, 유니베라한국 ⇨  
경영전략본부 부장, 유니베라한국  
Junyong Cho, Strategy & Planning Division, Senior  
Manager/Division Manager, Univera Korea ⇨  
Strategy & Planning Division, General Manager/  
Division Manager, Univera Korea



◀ 정현정,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사원,  
유니베라 한국 ⇨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Hyunjung Jung , Marketing Division, CS Team,  
Staff,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CS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진찬숙, 영업본부 제품물류반 사원,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제품물류반 대리,  
유니베라 한국  
Chansuk Jin, Sales Division, Product Logistics  
Team, Staff,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Product Logistics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박소윤,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사원, 유니베라한국 ⇨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Soyoon Park, Sales Division, Sales Planning  
Team, Staff,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ales Planning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서정범,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사원, 유니베라한국 ⇨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대리, 유니베라한국  
Junhbum Seo, Sales Division, Sales Planning  
Team, Staff,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ales Planning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김동선, 수석연구원, 팀장,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 연구위원(상무보), 팀장, 연구소,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Dongseon Kim,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Principal Researcher, Team Leader,  
Unigen Korea ⇨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Managing Director, Team Leader,  
Unigen Korea



◀ 이영철, 선임연구원, 개발관리팀, 유니젠 한국 ⇨  
책임연구원, 연구기획관리팀, 유니젠 한국  
Youngchul Lee, R&D development managing  
Team, Senior Reserarcher, Unigen Korea ⇨  
R&D Strategy Team, Senior Researcher,  
Unigen Korea





◀ 손은정, 주임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  
전임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Eunjung Son, Researcher,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Researcher,  
Unigen Korea



◀ 박경민, 과장, 재경팀, 유니젠 한국 ⇨  
팀장,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유니젠 한국  
Kyeongmin Park, Manager,  
Finance&Accounting Team, Unigen Korea ⇨  
Manager/Team Leader, Finance &  
Accounting Team, Unigen Korea



◀ 케난 버틀러, 데이터 입력 사원, 유니베라 미국 ⇨  
회계 사원, 유니베라 미국  
Kenan Butler, Data Entry Clerk, Univera USA ⇨  
Accounting Clerk, Univera USA



◀ 진 메이빈, 고객관리사원 1급, 유니베라 미국 ⇨  
고객관리사원 2급, 유니베라 미국  
Jean Maybin, CSR I, Univera USA ⇨  
CSR II, Univera USA



◀ 안드레아 톨몬, 고객관리사원 1급, 유니베라 미국 ⇨  
팀 리드, 유니베라 미국  
Andrea Tillmon, CSR I, Univera USA ⇨  
Team Lead, Univera USA



◀ 박찬영, 주임,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  
대리,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Chanyoung Park, staff, HR&General Affairs Team ,  
Unigen Korea ⇨ Assistant Manager, HR&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 데이브 프레데릭, 회계원, 에코넷 미국 홀딩스 ⇨  
회계 대리, 에코넷 미국 홀딩스  
Dave Frederick, Staff Accountant,  
ECONET USA Holdings ⇨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ECONET USA Holdings



◀ 줄리 가리슨, Operations 회계 수퍼바이저 ⇨  
Operations 회계 과장, 유니베라 미국  
Julie Garrison, Operations Account Supervisor ⇨  
Operations Account Manager, Univera USA



◀ 아메드 버살리, 고객관리사원 1급, 유니베라 미국 ⇨  
고객관리사원 2급, 유니베라 미국  
Ahmed Bersali, CSR I, Univera USA ⇨  
CSRII, Univera USA

# Promotions

## 부서이동 소개 / Transfers



◀ 정종희, 교육본부 교육팀 대리, 유니베라한국 ⇨  
마케팅본부 BM팀 대리, 유니베라 한국  
Jonghee Jung, Education Division Education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BM Tea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제이시 얼리와인, 제조 개발 화학자, 유니젠 미국 ⇨  
Sales and Marketing Coordinator, 유니젠 미국  
JC Earlywine , Process Development Chemist,  
Unigen USA a Sales and Marketing Coordinator,  
Unigen USA

##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지난 3월 10일 교육본부 교  
육팀 이윤진 대리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Best wishes for Assistant  
Manager Yunjin Lee  
(Education Division,  
Education Team) on her  
recent wedding, which  
took place this past  
March 10.

### 네이처텍 / NatureTech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CM팀 최정환 과장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  
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mother of Manager Jungwhan Choi (Strategy &  
Planning Division, SCM Team) passed away.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월 22일 강승원 과장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father of Manager Seungwon Kang (HR & General  
Affairs Team) passed away on February 22.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 축하합니다.  
지난 2월 18일 생리활성검정팀 김충섭 전임연구원의 아들  
김재현군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On February 18, Researcher Chungseop Kim (Bioassay &  
Discovery Team) celebrated the first birthday of his son,  
Jaehyun Kim.

###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축하합니다.  
1) 홀리 소렌슨(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이 3월 10일에  
결혼했습니다. 행운의 신랑은 제라드 로버트 존슨입니다.  
2) 마커스 카이 호드넷 (물류센터 직원, 유니베라 미국)이 4월  
14일에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이름은 제니퍼 레이 벤



스입니다.

3) 데이브와 캐리 콜맨 부부의 막내 딸 할리 앨리스 콜맨이 3월 7일 수요일밤 11시 23분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8.3파운드에 18.5인치입니다

◆ Congratulations

1) Hollie Sorensen (CSR, Univera USA) got married on 3/10. The lucky groom is Jared Robert Johnson.



2) Marcus Ky Hodnett (Warehouse Staff, Univera USA) is getting married on 4/14. The lovely bride is Jennifer Leigh Vance.

3) Congratulations to Dave and Carrie Coleman on the birth of their new daughter, Hallie Alyse Coleman, born Wednesday 3/7 at 11:23 PM. She weighs in at 8.3 lbs and is 18.5" tall.



생일자 소식 04 ~ 05

Birthday in April & May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 4/9 심호영  
John Sim



◆ 4/11 권수남  
Jena Soonam Kwon



◆ 4/16 짝은정  
Eunjung Kwak



◆ 4/20 조태형  
Taehyoung Jo



◆ 4/20 송형중  
Hyungjong Song



◆ 4/22 이병훈  
Byeonghoon Lee



◆ 4/28 최상태  
Sangtai Choi



◆ 5/22 오경아  
Kyoungah Oh



◆ 4/1 박용운  
Yongwoon Park



◆ 4/3 윤상기  
Sangki Yoon



◆ 4/4 윤성원  
Sungwon Yoon



◆ 4/4 신범순  
Beomsoon Shin



◆ 4/4 김연자  
Yoenja Kim



◆ 4/6 박성완  
Sungwan Park



◆ 4/6 김원복  
Wonbok Kim



◆ 4/7 박옥자  
Okja Park



◆ 4/10 유홍석  
Hongsuk You



◆ 4/11 권혁민  
Hyukmin Kwon



◆ 4/15 김영덕  
Youngduk Kim



◆ 4/16 안계환  
Kyehwan An



◆ 4/17 이재윤  
Jaeyun Lee



◆ 4/18 한희순  
Heesoon Han



◆ 4/19 이명숙  
Myungsook Lee



◆ 4/19 박종숙  
Hongsuk Park



◆ 4/21 방창규  
Changgeu Bang



◆ 4/25 김윤자  
Yoonja Kim



◆ 5/05 김미영  
Miyoung Kim



Happy Birthday



◆ 5/10 김용재  
Yongjae Kim



◆ 5/11 박정순  
Jungsoon Park



◆ 5/13 신부희  
Boohee Shin



◆ 5/13 김영은  
Youngeun Kim



◆ 5/15 김온수  
Younsoo Kim



◆ 5/19 신춘하  
Chounha Shin



◆ 5/20 황오하  
Oha Hwang



◆ 5/22 이필자  
Philja Lee



◆ 5/24 이태순  
Taesoon Lee



◆ 4/3 이동영  
Dong Young Lee



◆ 4/5 이용재  
Young Jae Lee



◆ 4/5 김윤식  
Yunsik Kim



◆ 4/16 김희수  
Hyeesu-Kim



◆ 4/18 옥민상  
Minsang Ock



◆ 4/21 이진우  
Jin Woo Lee



◆ 4/30 정현정  
Hyunjung Jung



◆ 5/2 조성훈  
Seonghoon Cho



◆ 5/4 추장원  
Jangwon Choo



◆ 5/6 김수범  
Soobum Kim



◆ 5/9 정찬수  
Chansoo Chung



◆ 5/11 최윤선  
Yunseon Choi



◆ 5/13 신은미  
Eunmi Shin



◆ 5/17 조은석  
Eunseok Cho

Happy Birthday



◆ 5/18 변인숙  
Innsook Byeon



◆ 5/19 신희  
Heung Shin



◆ 5/22 김훈경  
Hunkyo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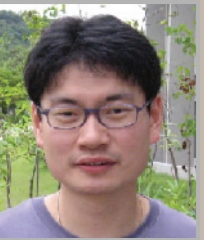
◆ 5/24 김은희  
Eunhee Kim



◆ 5/26 임은혜  
Eunhye Lim



◆ 5/29 이혜진  
Huejin Lee



◆ 4/24 임경진  
Kyoungjin Lim



◆ 4/25 이정민  
Jungmin Lee



◆ 5/9 강승원  
Seungwon Kang



◆ 5/23 김종한  
Jonghan Kim



◆ 5/26 김현진  
Hyunjin Kim



◆ 5/27 박은혜  
Eunhy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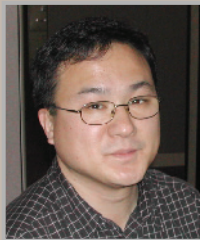
◆ 5/27 차경섭  
Kyoungsub cha



◆ 4/2 하이드리 헨슨  
Heidi Hansen



◆ 4/20  
에드윈 가마우와  
Edwin Kamauoha



◆ 4/26 김석원  
Greg Kim



◆ 5/31 데렉 홀  
Derek Hall



◆ 4/3 캐롤린 돌란  
Carolyn Doolan



◆ 4/24 네이던 주다  
Nathan Judah



◆ 5/19 캐티 마컴  
Kathy Markham



◆ 5/20 유안 자오  
Yuan Zh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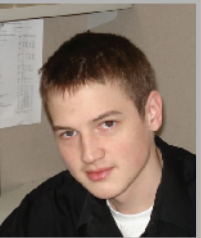




◆ 4/9 실비아 브릭  
Sylvia Brcic



◆ 4/20 존 밀러  
John Miller



◆ 4/22  
블레이크 메이어스  
Blake Meyers



◆ 5/1 케넌 버틀러  
Kenan Butler



◆ 5/1 브리지 헨닝스  
Breezee Hennings



◆ 5/9 홀리 소렌슨  
Hollie Sorensen



◆ 5/10 리처드 코넨  
Richard Conant



◆ 5/14 아만다 데이비스  
Amanda Davis



◆ 5/16 다니엘 베헤츠  
Daniel Betz



◆ 5/21 랜디 그로버  
Randy Grover



◆ 5/24 뎀 그로버  
Deb Grover



◆ 5/24 엔젤 서라노  
Angel Serrano



◆ 5/25 안드레아 틸몬  
Andrea Tillmon



◆ 5/31 아만다 울프  
Amanda Wolf



◆ 4/15 산 화나 레오스  
San Juana Leos



◆ 4/16 마리아 멘도자  
Maria Mendoza



◆ 4/21  
이본 투루비아테스  
Yvonne Turrubiates



◆ 5/21 피터 해퍼만  
Peter Hafermann



◆ 5/29 알버토 아다메  
Albert Adame



◆ 4/3  
아우렐리오 비에라  
Aurelio Villela



◆ 4/7  
까르멜로 모랄레스  
Carmelo Morales



◆ 4/7  
에르일로 까스띠요  
Hermilo Castillo



◆ 4/14  
베르나르디노 소또  
Bernardino Soto



◆ 4/14  
하이메 오르떼가  
Jaime Ortega



◆ 4/14  
후안 마르띠네스  
Juan Martinez



◆ 4/14  
후스띠노 소또  
Justino Soto



◆ 4/19  
마리아 레베까 로드리게스  
Maria Rebeca Rodriguez



◆ 4/20  
다비드 멘도사  
David Mendoza



◆ 4/22  
알레한드로 아비라  
Alejandro Avila



◆ 4/27  
호세 웰리시아노 홀로레스  
Jose Feliciano Flores



◆ 4/28  
오르텐시아 에르난데스  
Hortencia Hernandez



◆ 4/29  
홀리안 살라자르  
Julian Salazar



◆ 4/30  
레후히오 로레도  
Refugio Loredo



◆ 4/30  
우고 에르난데스  
Hugo Hernandez



◆ 5/3  
호세 크루스 로드리게스  
Jose Cruz Rodriguez



◆ 5/6  
빠스꾸알 트레호  
Pascual Trejo



◆ 5/7  
미겔 안헬 오르따  
Miguel Angel Orta



◆ 5/8  
호세 브루덴시오 로드리게스  
Jose Prudencio Rodriguez



◆ 5/19  
클라우디아 바스케스  
Claudia Vazquez



◆ 5/21  
로베르토 올모스  
Roberto Olmos



◆ 5/25  
리카르도 로페스  
Ricardo Lopez



◆ 5/25  
로사 알바라도  
Rosa Alvarado



◆ 4/1  
제리 필그림  
Jerry Pilgrim



◆ 4/29  
사비노 곤잘레즈  
Sabino Gonzalez



◆ 5/28  
제임스 맥클린스  
James Mcinnis



◆ 4/5  
리트비노브 올레그 알렉산드로비치  
Litvinov Oleg Aleksandrovich



◆ 4/29 뤼 지안웬  
Luo Jianwen



◆ 5/4 멩 린하오  
Meng Linhao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 Aloecorp USA (Mexico)  
• 4/20 헤수스 마가냐 Jesus Magana
- ▶ Unigen-Russia & Ubicom  
• 5/12 바제노브 예비게니히 게냐첼비치 Bazhenov Evgeniy Gennadyevich  
• 5/17 라브리첸코 아나톨리에 이바노비치 Lavrichenko Anatoliy Ivanovich  
• 5/23 초이 레오니드 알렉산드로비치 Choi Reonid Aleksandrovich
-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5/22 후앙 쉬팅 Huang Shiting



‘내가 뽑은 베스트 드레서’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당첨되신분들중 사진속 주인공과 응모한 사람이 다를경우 상금을 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완전한 품격

유니베라의 베스트 드레서로 인사부 과장인 게일을 추천한다. 감각 있는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만의 개성 있는 패션 연출은 유니베라의 베스트 드레서로 손색이 없다.

사진속 주인공 : 게일 메릿 - 스미스, 인사부 과장, 유니베라 미국

응모한 사람 : 줄리 다비, 상임 프로젝트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Photo Contest

First Prize Winner Total Class

I chose Gail Merritt - Smith from Univera as the ‘Best Dresser in Office’. As the HR Manager, she represents Univera with style and class, dressed professionally every day (even on casual Friday!).

Person in Picture : Gail Merritt-Smith, HR Manager, Univera USA

Submitted by : Julie Darby, Senior Project Manager,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The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My Pick for Best Dresser’

If the person in the photo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entry, we request that the winnings be divided equally between them.



우수상 우수상 자랑스러운 알로콧 유니폼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에스테반 구즈맨. 셔츠는 단정하게 바지 안에 넣고, 구두와 허리띠는 같은 색으로 통일시켜주는 센스. 그가 입고 있는 유니폼의 흐트러짐 없는 옷 매무새에서 유니베라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사진속 주인공 : 에스테반 구즈맨, 프로덕션 매니저, 알로콧 미국

응모한 사람: 에스메랄다 이니게즈, 인사부/ Executive 프로젝트 수퍼바이저, 알로콧 미국 (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Proudly Wears the Aloecorp Uniform

Esteban Guzman is always well dressed and well groomed. His shirt is always tucked-in and his boots always match his belt. His appearance is always nice and clean and portrays pride in wearing his uniform.

Person in Picture : Esteban Guzman, Production Manager, Aloecorp USA

Submitted by : Esmeralda Yniguez, Supervisor of Human Resources and Executive Projects, Aloecorp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아차상1 여자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은 남자들.

유니베라 대리점 행사가 있던 날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기쁨을 주기위해 색다른 변신을 한 유니베라 남직원들.. 여자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왼쪽부터 백재열, 조은석, 박석신, 박영수, 이원석

응모한 사람 : 이원석, 마케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Men Dressed Up to the Nines

On the day of the Univera retailers’ event, Univera’s male employees attempted an unusual transformation to the delight of the sales managers in attendance. Aren’t they even prettier than women?

People in Picture: From left, Jaeyeol Baek, Eunseok Cho, Seokshin Park, Yeongsoo Park, Wonseok Lee

Submitted by: Wonseok Lee, Marketing planning Team, Univera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 아차상2

알몸으로 태어나던 날 최고의 옷 한벌  
갓 태어난 아기에겐 배냇 저고리는 생애 최초이자 최고의 옷이 아닐까요?

응모한 사람 : 조성훈, 서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Just Missed Award 2

### *The Finest “Birthday Suit”*

*On the day our baby was born naked into the world, this traditional newborn’s jacket couldn’t have been a more perfect birthday suit!*

Submitted by : Seonghoon Jo, Sales Dept, Univera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 아차상3

3인치 하이힐에서 나오는 긍정적 태도  
밥 풀턴은 항상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멋진 스타일은 잘 어울리는 신발로 완성된다. 밝은 동료들에 의해 에코넷 레이시 오피스 본사의 베스트 드레서로 추천되었다. 그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의젓함, 유머와 개성적 스타일은 전위적인 옷과 엄청난 구두 컬렉션, 그리고 악세서리에 잘 반영되고 있는데 그녀의 스타일은 재밌고 발랄하면서도 언제나 직장 분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3인치 하이힐에서 나오는 그녀만의 발랄한 분위기이다.

사진속 주인공 : 밥 풀턴, 지역 사회 봉사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응모한 사람 : 선 리,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에코넷 미국 / 레베카 보침, Compliance Manager, 에코넷 미국 / 캐티 마컴, 임원 보조, 유니젠 미국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Just Missed Award 3

### *positive attitude in a pair of 3-inch heels*

*A positive attitude is everything with Barb Fulton. And, what’s a great attitude without a great pair of shoes to go with it! Barb has been voted by her co-workers as Best Dresser at ECONET Lacey headquarters. Her grace-under-pressure, humor and sense of personal style are reflected in avant-garde clothes, an amazing shoe collection and accessories that are fun, upbeat, and always professionally appropriate. That’s positive attitude in a pair of 3-inch heels.*

**People in Picture : Barb Fulton,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ECONET, Inc.**

Submitted by :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ECONET USA / Rebecca Beauchamp, Compliance Manager, ECONET USA / Kathy Markham, Executive Assistant, Unigen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 그밖에 응모해 주신분들 *Honorable Mentions*



### 옷 잘입은 안전 감독관

우리 안전 감독관인 마이크 잔은 연구실 복장에 대해 무척 엄격하다. (유니젠 미국에서는 각 연구실이 안전 감독관을 지정하여 연구실의 안전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속 주인공 : 마이크 잔 (연구원, 유니젠 미국)

응모한 사람 : 타오 트린, 연구원, 유니젠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 *Best Dressed Safety Officer*

*Our Safety Officer, Mike Zahn, is very serious about what’s appropriate for lab attire. (In Unigen USA, each lab has a safety officer in charge of lab safety related issues.)*  
**Person in Picture: Mike Zahn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Submitted by: Thao Trinh,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 이승엽 400호 홈런 치던 날!!

이승엽 선수 400호 홈런 치던 날 일본 도쿄 돔에서의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속 주인공 & 응모한사람 :옥민상, 부산경남팀, 유니베라 한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 *The Day Seungyeop Lee Hit His 400<sup>th</sup> Home Run!*

*This is me at Tokyo Dome on the day Lee Seung-yeop hit 400th home run, wearing the team jersey.*

Person in Picture & Submitted by : Minsang Ock, Sales Dept, Univera Kore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 04월호 퀴즈 & 02월호 당첨자 발표

### 지난 호 퀴즈정답 (네이처텍 / NatureTech)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3중세트를 드립니다.)
  - 표한중 선임연구원, 연구개발팀, 네이처텍
  - 최민경,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황보현정, 품질관리팀, 유니젠 한국
  - 엔젤 서라노, 고객관리 사원 2급, 유니베라 미국
- ▶ 4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4page에 있습니다.
- ▶ 2007년 6월호에는 반대되는 사람(신체)이나 물건을 비교하여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 1등: 150,000원 상품권(1명)
  - 2등: 100,000원 상품권(1명)
  - 3등: 50,000원 상품권(1명)

### 04월호 ECONET Way 퀴즈!

유니베라 한국에서는 파이토로지스(PhytoLogix™)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천연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피부 본래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밝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화장품인 ( )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80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 응모하신분들중 당첨자에게는 신제품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선케어 프로텍터를 드립니다.

## April Quiz and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 Answers to the February quiz (NatureTech)

- ▶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 L'initie gift sets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s.)
  - Hanjong Pyo, R&D Team, NatureTech
  - Minkyong Choi, General Management Dept., Univera, Korea
  - Hyungjung Hwangbo, Quality Innovation Team, Unigen Korea
  - Angel Serrano, Customer Care CCR II , Univera USA
- ▶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our April issue are announced on page74.
- ▶ For the June 2007 issue, please send in your photos of drastically contrasting people or objects.  
E.g. A tall person next to a short person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 (1 person)
  - Thi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 (1 person)

### April ECONET WAY Quiz

Using a unique and revolutionary technology called PhytoLogix™, Univera Korea has unveiled ( ), a new cosmetic brand for skin whitening. PhytoWhite uses natural botanical extracts to dramatically enhance the skin's innate functions while effectively improving such skin problems as discoloration to reveal clear, bright, and transparent skin.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Page 80,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 The new L'initie PhytoWhite Suncare Protector will be awarded to selected winning entries.

###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 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또는 80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에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에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Page 80,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김경미 대리, 전략기획팀, kkmimi99@univera.com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trategy & Planning Team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콥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손병일 차장,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신상현 과장, Sangs@upi1.com  
Sang H. Shin, Account Manager

####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 알로콥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 알로콥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sup>th</sup>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univera



L'initié  
PhytoWhite



## 파이토 화이트를 만난 그녀, 하얀 빛에 물들다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라인은  
천연 미백 약용 식물 성분이 4단계 솔루션을 통해  
피부 미백을 실현하는 스페셜 케어 라인입니다.

Skin Healing Program - 리니시에